

E 02-2012-04 | 2013.1 |

제14권 제4호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목 차

1 포커스

- ▶ 2012/13년 북한의 식량수급 3

2 2012년 특별기획

- ▶ 남북농업협력의 추진현황과 과정 -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를 중심으로 - 21

3 북한농업 동향

- ▶ 북한매체 보도 동향 41
- ▶ 국내매체 보도 동향 70

4 농업교류협력 동향

-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95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95
 - 2. 대북지원동향 108
-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10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10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121
 - 3. 북중 교역 동향 124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담보 133
- ▶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하는 것은 현시기 산림조성사업의 중요한 과업 135

• KREI 북한농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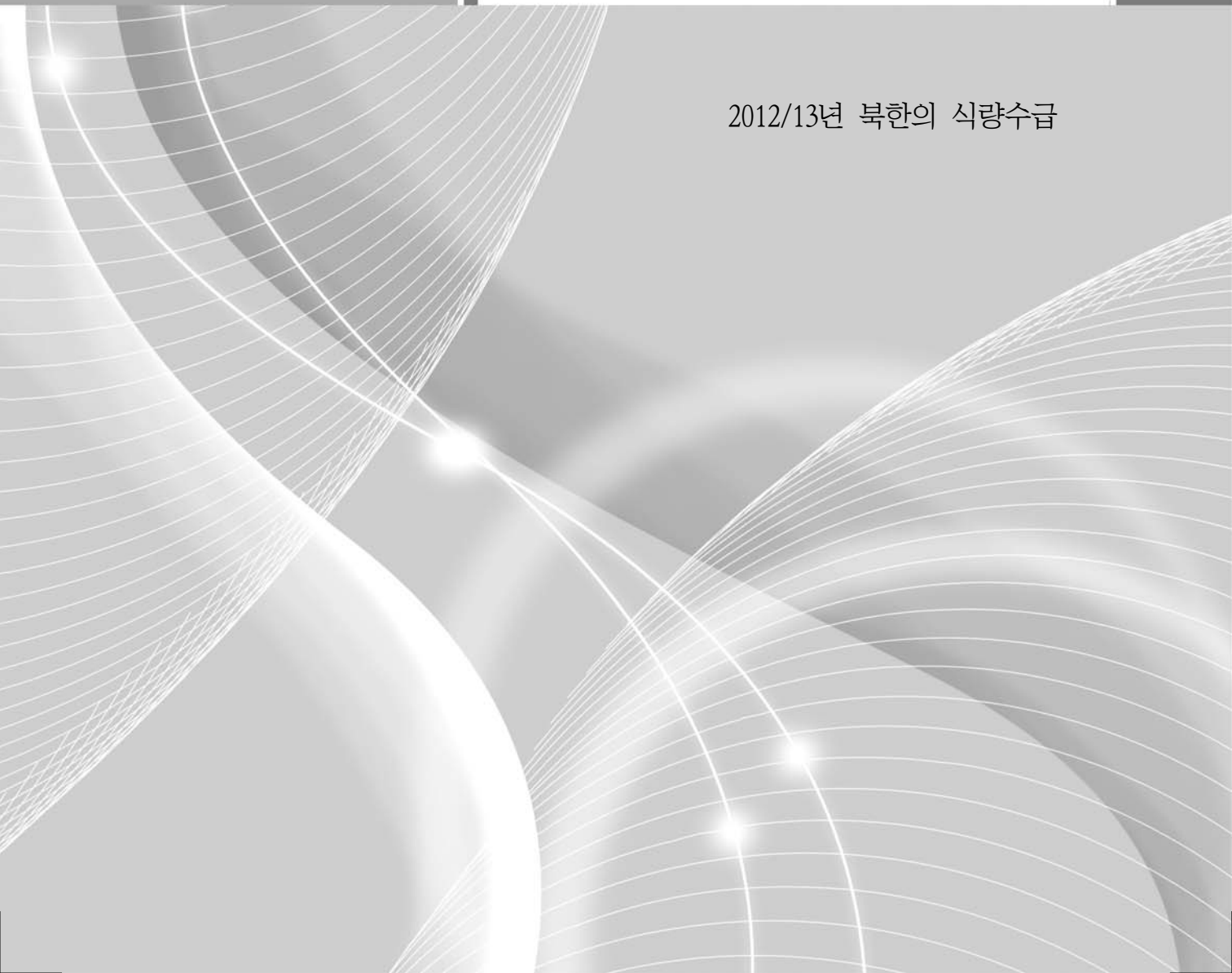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1

포커스

2012/13년 북한의 식량수급



2012/13년 북한의 식량수급¹⁾

정리: 김영훈²⁾, 남민지³⁾

1. 북한의 경제와 농업의 전반적 현황

지난 6년 동안(2006~2011년) 전반적으로 북한의 경제침체는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3개 연도(2006, 2007, 2009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6년간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총 3%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실질국민소득이 연간 0.4%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⁴⁾ 그러나 2010년부터는 북한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은 농수산물의 증산과 건설 활동 증가, 자연자원 수출 증가, 해외 파견 노동자들로부터 송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농림수산부문 생산은 201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안정적인 성장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북한의 농업부문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임업과 수산업을 포함해 농업은 북한의 주 소득원이지만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대 초 약 30%에서 2010년 약 21%로 하락했다. 농업부문은 생산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뭄, 홍수, 해일, 우박, 태풍,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는 농업생산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특히 1996년, 1997년, 2000년, 2007년, 2009년, 2010년의 식량생산이 기후에 큰 영향을 받았다. 2000년 이래 식량생산부문은 전체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최근의 생산수준은 1980년대 후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곡물 생산은 2011년과 2012년 연속 증가해 비록 조곡이지만 1994년 이래 처음으로 5백만 톤 생산을 초과했다.

2000년대 농업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980년대에 기록한 식량 생산 수준에

1) 이 글은 FAO와 WFP가 공동으로 작성한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2012.11)'과 '테일리NK'에서 제공하는 북한의 쌀 시장가격 자료를 재정리해 작성한 것이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yhoon@krei.re.kr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mj0801@krei.re.kr

4) Economist Intelligence Unit, October 2012 Country Report and earlier issues, FAO/WFP(2012.11)에서 재인용.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은 여전히 많다. 외화 부족으로 인해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비닐, 농기계 예비부품, 트랙터 및 트럭 타이어, 연료 등 필수 농자재의 상업적인 수입은 제한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비료 생산량은 총 필요량의 약 10% 수준으로 감소되어 비료의 도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료의 총사용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석회 공급은 운송 여건 때문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주요 작물의 단수는 1980년대 정상적 단수에 비해 크게 떨어진 상태이다.

식량부족 시기 북한은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산간지역 경사지를 포함해 경작 가능한 모든 토지를 식량생산에 투입하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한계지 경작은 토양의 침식, 생산성 높은 평지 저지대의 홍수피해 위험 증대, 전반적인 토지 생산성의 하락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은 경사지의 산림 환원과 조림에 관한 규정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으나 복구와 개선은 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지의 생산성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비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콩과작물과 감자를 윤작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2012/13년 북한 식량 작황 및 수급 전망(FAO/W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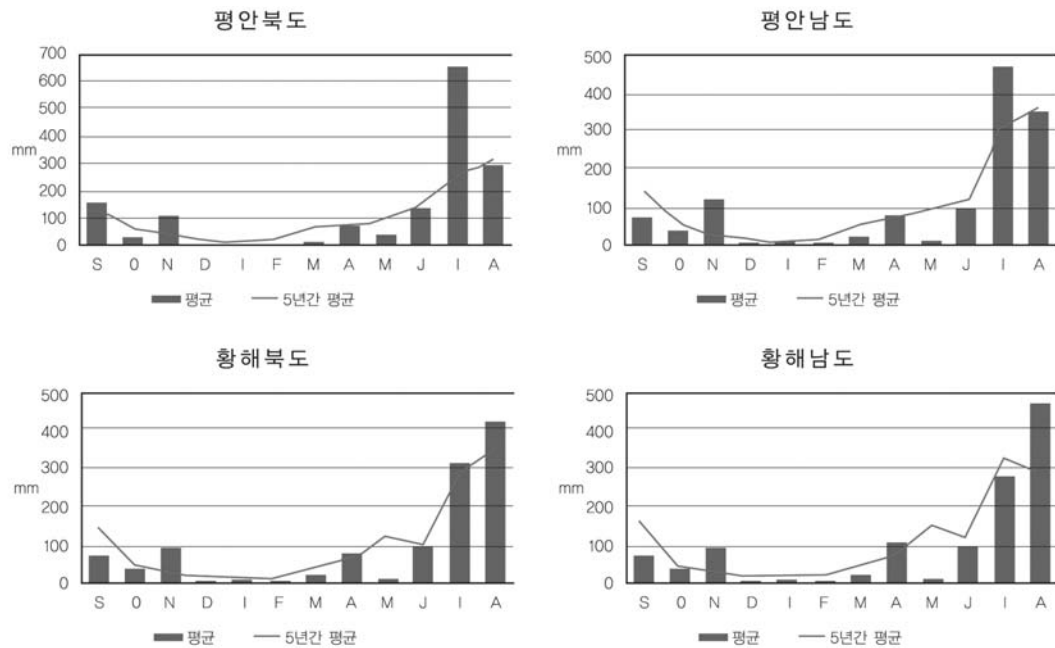
가. 작황 요소

(1) 기후

2012년 5월과 6월에는 긴 가뭄이 이어졌다. 이 가뭄은 겨울 밀과 보리 수확량과 봄 채소의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를 재식해야 했으며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다. 벼는 관개용수 덕택에 옥수수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 7월에는 심한 홍수가 발생해 농토가 유실되고 침수로 인해 수확량 감소도 있었다. 이 홍수는 농경지보다 시설들에 더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되었다. 8월 말에는 15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 지방에서 피해가 심했다. 이 태풍으로 인해 47,000ha의 작물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 9월 말과 10월 초의 폭우는 자강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역 작물들의 수확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일조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기후는 전체적으로 작물의 생육에 유리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1〉은 2006~2010년 기간과 비교해 2011년 9월에서 2012년 8월 기간 동안 북한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4개 도의 강수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5월과 6월에 강수량이 부족했다는 사실과, 평안남북도의 7월 폭우와 황해남북도의 8월 폭우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림 1. 2011-2012년 북한의 강수량(4개 도 지역)



자료: FAO/WFP(2012.11)

(2) 식량작물 식부면적

2012년 곡물, 감자, 대두의 식부면적은 2011년에 비해 0.2% 감소한 126만 5천 ha였다. 2013년 봄에 수확할 예정인 봄작물은 종자의 부족으로 식부면적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약 16%). 텃밭과 경사지를 포함해서 2012/13년 식량작물 총 식부면적은 전년 대비 약 1% 감소한 202만 5천 ha로 추정되고 있다.

협동농장의 모든 농가는 최대 30평의 텃밭을 경작할 수 있다. 북한에는 총 170만 농가가 있으므로 텃밭은 1만 7천 ha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430만에 달하는 도시 거주자들도 5~10평의 소규모 텃밭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과 기관이 보유한 텃밭의 면적은 약 2만 5천 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의 경사지밭도 있다. 경사

도 15°를 넘는 산지에 조성된 비탈밭은 약 55만 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

북한 농업성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실시된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에 힘입어 벼 재배면적이 전체적으로 6만 ha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벼 재배면적은 2011년의 57만 1,364ha보다 1% 감소해 56만 3,237ha로 나타나고 있다. 벼 재배면적이 감소한 주된 요인은 5월과 6월의 가뭄이다.

2012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53만 1,000ha로 전년 50만 3,000ha에 비해 약 6% 증가했다. 재배면적 증가 요인으로 일부 벼 재배의 대체도 있지만 주된 요인은 대두 재배의 대체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협동농장에서 대두 재배지를 옥수수 재배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감자 재배면적은 2011년 34만 ha에 비해 22% 감소된 26만 479ha였다. 면적 감소의 요인은 씨감자 부족이다. 씨감자가 부족하게 된 것은 2012년 감자 생산이 부진했을 뿐 아니라, 2년에 걸친 흑한으로 인해 저장되었던 씨감자들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봄작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13년에는 봄감자 식부면적이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2/13년도 전체 감자 수확면적은 2011/12년에 비해 약 4% 감소된 13만 1,000ha로 추정된다.

겨울밀과 봄보리는 북한의 농업복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FAO와 UNDP가 공동으로 시행한 이모작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작물이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겨울밀 생존률 하락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봄감자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다. 2012/13년의 계획 식부면적은 90만 ha이나 종자의 부족으로 실제 식부면적은 80만 ha로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대두 식부면적은 2011년에 비해 12% 감소했다. 식부면적 감소의 주된 원인은 대두의 파종기인 5월에 발생한 가뭄이다. 그러나 다른 요인도 있다. 첫째는 옥수수의 단수에 비해 대두의 단수가 낮아 더욱 많은 곡물을 생산하기를 원하는 농장 관리자에게 대두보다 옥수수가 더 매력적이라는 점, 둘째는 대두가 식량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대두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단백질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식부면적 감소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밖에 북한에서 재배되는 기타 식량작물에는 수수, 기장, 고구마, 메밀 등이 있다.

협동농장의 모든 농기는 최대 100m(약 30평) 규모의 텃밭을 경작할 수 있다. 최근

5)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은 2008년 산림감시원들의 보고를 토대로 경사지의 산림파괴지역이 30만~35만ha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EU공동연구센터는 2012년에 수행한 조사에서 이 면적이 55만ha에 달한다고 발표했다(JRC IES/H04/F/HKE/hke D(2012).

실시된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농가별 텃밭의 평균면적은 상한선인 30평에 근접하고 있다. 북한에는 총 170만 농가가 있으므로 개인 경작 텃밭은 1만 7천 ha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430만에 달하는 도시 거주자들도 15~30㎡의 소규모 텃밭을 경작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이나 공장 구성원들을 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공장에 할당된 부업밭도 있다. 이 부업밭의 규모는 기관이나 공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이들 경작지 면적은 약 2만 5천 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식량위기 이후 산림 경사지도 개간해 경작하고 있다. 북한에서 작물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경사지의 면적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국토환경보호성은 2008년 산림감시원들의 보고를 토대로 경사지 산림과피지역이 30만~35만 ha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EU가 2012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경사도 15° 이상 산지 중 약 55만 ha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3) 농자재 공급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벼는 4월 초에 모판에 파종하고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이앙한다. 2012년 모판 비닐의 공급은 FAO-북한 농업성 간의 협력사업으로 2011년보다 증가했다.

2012년 공급되고 사용된 화학비료는 2011년에 비해 3% 가량 적었지만 인과 탄산칼륨의 소비는 약 4배 증가했다. 2012년 인과 탄산칼륨의 사용은 최근 수년 동안 최고 수준이며 모두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다. 2012년 질소비료의 국내생산은 2008년 수준에 비해서는 적지만 최근 약간 증가했다. 국내생산 비료의 증가로 인해 비료의 수입과 지원은 12% 감소되었다. 협동농장들은 필요로 하는 비료의 60~80%가 충족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보고 수치는 2011년 비슷한 수준이다.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적기에 공급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는 유기질비료(거름)의 사용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목표소비량은 ha당 20톤).

표 1. 북한의 화학비료 수급(2008-2012년)

단위: 실증량 톤

	연도	국내생산량	도입량	재고량	소비량	진여량
질 소 황산암모늄, 질소 20.5% 상당	2012	202,931	483,586	3,000	686,517	3,000
	2011	189,335	548,108	1,500	735,943	3,000
	2010	174,350	299,250	3,000	475,100	1,500
	2009	170,090	266,817	900	434,807	3,000
	2008	256,800	181,157	1,400	438,457	900
인 과린산석회, P2O2 17% 상당	2012	21,460			21,460	
	2011	5,545			5,545	
	2010	11,402	n.a.	n.a.	11,402	n.a.
	2009	2,776			2,776	
	2008	7,425			7,425	
칼 륨 K2O 48~62% 상당	2012	18,650			18,650	
	2011	4,477			4,477	
	2010	12,314	n.a.	n.a.	12,314	n.a.
	2009	8,400			8,400	
	2008	10,415			10,415	
계	2012	243,041			726,627	
	2011	199,357			745,965	
	2010	198,066	n.a.	n.a.	498,816	n.a.
	2009	181,266			445,983	
	2008	274,640			456,297	

자료: WFP/FAO, 2012. 11.

북한의 농장에서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 델타메트린(deltamethrin)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농약은 2011년에 비해 공급량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2012년 5월과 6월의 가뭄으로 인해 방아벌레 같은 토양 해충이 증가했으며, 가뭄이 지난 후 습한 날씨로 해충의 활동이 증가했다. 그 결과 이화명충이 벼와 옥수수에 널리 퍼졌는데, 새로 개발된 두 개의 벼 품종인 강성 1호와 평양 15호가 이화명충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벼물바구미와 조밤나방도 자주 출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 논벼 잎집무늬마름병, 세균성 잎마름병, 감부기 등이 논에서 임계치 이하 수준으로 발견되었으며 옥수수에서는 붉은곰팡이가 임계치 이하 수준으로 발견 되었다.

제초제는 2012년에 약 1,218톤이 사용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확인하기는 어렵다. 병충해집중관리체계(IPM)가 북한 농업에 많이 보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병충해 집

중관리 방안에는 유아등, 페로몬 트랩, 담배에서 추출한 니코틴, 감자 잎에서 추출한 솔라닌 사용이 포함되고 있다.

(4) 농기계 동력

농업동력의 부족은 작물 생산 향상에 제약요인이다. 북한에서 일반적인 28마력 천리마 트랙터는 힘이 약하며 속도가 느리고 수도 부족하다. 농기계의 성능 부족과 디젤유 공급 부족으로 곡창지대 이외의 지역들에서는 경지의 약 60%에서만 기계 경운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력 부족으로 보리 재배지역 확대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북한의 트랙터 수는 2012년 들어 4% 감소했으며 가동률은 7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2년 소비된 경유의 양은 2011년에 비해 5% 정도 감소된 6만 2,500톤이다(표2). 그러나 경유도 비교적 적기에 공급되어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다(표3). 경유는 농장에 전달되기 전까지 여러 단계의 컨테이너들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오염되고 있다. 이 오염은 북한의 주 트랙터인 천리마 엔진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지만 성능이 더 우수하거나 정교한 엔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표 2. 북한의 트랙터 보유 규모

단위: 대

도	2011	2012	변화(%)
평양1	4,016	2,846	-29
평안남도	8,035	8,180	2
평안북도	9,064	8,763	-3
자강도	2,064	1,822	-12
황해남도	12,392	12,449	0
황해북도	7,954	7,377	-7
강원도	3,558	3,501	-2
함경남도	6,585	6,245	-5
함경북도	4,087	4,190	3
양강도	2,358	2,276	-3
남포시	2,875	2,823	2
총계	62,988	60,472	-4

주: 2011-12년도 평양의 트랙터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행정구역변경임.
자료: FAO/WFP(2012,11)

표3. 북한 농업부문의 연료소비 규모

	2011	2012	단위: 톤 변화(%)
석 유	6,800	7,200	6
경 유	68,000	64,480	-5
계	74,800	71,680	-4

자료: FAO/WFP(2012.11)

(5) 관개

대규모 관개수로 재정비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자연흐름에 의존하는 관개시스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전통식 양수 시스템에 의존하는 관개수로에 전력을 더 많이 송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연흐름식 관개수로 완공에 따라 2012년 봄가뭄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북한 농업당국은 보고하고 있다.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일반적으로 관개의 중요성이 낮은 옥수수와 채소는 우물과 관정을 새로 개발하거나 트랙터와 인력을 동원해 물을 공급했다. 2012년 5월과 6월의 가뭄 기간에 1,700개의 저수지들 가운데 210개의 저수지가 고갈되었으며, 6월말 저수지의 물 보유량은 목표치인 35억m³의 1/3을 하회했다.

나. 식량 생산과 수급

(1) 생산

북한의 2012/13년도 식부면적, 단수, 생산량 전망치는 <표4>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는 북한 농업성 통계, FAO/WFP의 현지 조사결과에 근거한다. 객관적인 추정을 위해 협동농장 관리자, 식량 배급소 대표, 국제기구 조사단 대표로 구성된 3인이 수확 전에 경작지 별로 표본을 채취해 단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국제기구 조사단에 의하면 이 결과들은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03만 톤으로 추정되는 2012년 가을 수확 작물 생산량(조곡)은 2011년에 비해 약 6% 증가한 것이며 평균 단수로는 8% 증가했다. 2012/13년 봄작물 수확량은 2011/12년의 두 배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 봄작물을 포함하면 2012/13년 조곡의 총 생산량은 2011/12년 대비 10% 증가한 5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4).

표 4. 2012/13년과 2011/12년 식량작물 생산량 비교

	2012/13			2011/12)		
	식부면적 (천 h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식부면적 (천 a)	단수 (톤/ha)	생산량 (천 톤)
가을수확 작물	1,265	4.0	5,031	1,268	3.7	4,750
벼(조곡)	563	4.8	2,681	571	4.3	2,477
옥수수	531	3.8	2,040	503	3.7	1,857
기타곡물	29	2.0	59	29	1.7	49
감자	26	3.2	84	34	3.6	121
대두	115	1.5	168	131	1.9	245
봄작물(계)	185	2.6	475	198	1.1	224
밀, 보리2)	80	2.0	160	95	0.7	71
감자	105	3.0	315	103	1.5	153
국가 전체	1,450	3.8	5,506	1,466	3.4	4,974
경사지	550	0.4	220	550	0.4	220
텃밭	25	3.0	75	25	3.0	75
총계	2,025	2.9	5,801	2,041	2.6	5,269

주: 1) 함경남북도 및 자강도에서 주로 재배되는 겨울밀과 보리의 통계는 일부 포함

2) 봄 작물에 대한 공식 추정에 기초해 수정

자료: FAO/WFP, CFSAM(2012.11)

작물별 생산 전망은 다음과 같다.

2012년 벼(조곡) 단수는 ha당 4.76톤이다. 이는 2010년도 대비 2% 증가한 2011년보다 11% 증가한 것이다. 2012년 벼 식부 면적이 약간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증가했다. 이는 일조시간 증가를 포함한 유리한 기상조건과 농자재의 적시 공급에 기인한다.⁶⁾ 벼에 비해 옥수수는 가뭄에 더 취약하지만 가뭄 시기 옥수수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수확량 감소가 최소화되었다. 그 결과 2011년에 비해 2012년 생산량은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식부면적의 증가와 단수의 증가에 기인한다. 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입재의 적시공급, 충분한 일조량, 유리한 기상조건이 옥수수 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대두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31% 감소했다. 이는 대두의 파종에 중요한 시기인 5월경에 심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봄감자 면적은 2012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5월과 6월에 발생

6) 북한에서 농자재의 공급은 여전히 큰 폭으로 부족하다. 여기에서는 2012년에는 부족한 농자재나마 조금 일찍 공급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가 2013년 봄과 초여름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ha당 2.5톤의 수확과 25만 톤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목표(30만 톤)보다는 낮지만 가뭄에 많은 영향을 받은 작년 생산량의 두 배에 해당되는 양이다. 밀과 보리도 이상기후가 아니라면 올 초여름에 생산증가가 예상된다. 종자 부족으로 인한 식부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ha당 2톤의 단수가 구현되면 총 15만 톤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모작은 기상조건이 나쁘거나 농자재가 부족할 경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2012년은 기상조건도 불리했으며 농자재도 부족했다. 이모작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협장농장에 충분한 자원과 인센티브도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용 비닐은 이모작에 필수적인 농자재로서, 이른 봄 벼나 옥수수의 모판을 3주 동안 보호해 준다. 5월과 6월 봄작물 수확과 주작물 이식 간의 매우 긴박한 일정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과 농기계가 필요하다.

규모는 제한되어 있지만 농가 텃밭은 토끼, 돼지, 염소, 가금과 같은 소가축 사육과 작물 생산에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농가구의 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텃밭과 부업밭의 전형적인 이용 형태는 자가 소비를 위한 식량과 채소의 생산이다. 이들 경작지의 생산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옥수수와 감자는 ha당 6톤을 수확할 수 있다. 전국 텃밭과 부업밭 면적의 절반에서 곡물이 생산된다고 가정하면 약 7만 5천 톤의 식량이 여기에서 생산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2012/13년도 식량수급 전망

곡물, 쌀(정곡 기준), 감자 및 대두(곡물 상당치로 환산)를 포함한 북한의 2012/13년 식량수급 전망치는 <표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표의 수치는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서 추정되었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는 2008년 10월 1일 현재 2,405만 명이다. 여기에 연평균 인구성장률 0.6%를 적용하면 2012/2013(11/10월)인구를 2,47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제기구 조사단은 2012년도 북한 인구의 1인당 곡물 소요량을 174kg으로 설정했다(곡물 152kg, 감자 12kg, 대두 10kg을 포함). 이는 CFSAM 2011년 추정치와 동일하다. 올해의 총 소비량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이번 유통년도 기준 생산량 전망치와 맞추기 위해 각 품목별로 소비량을 일부 조정했다. 올해의 연평균 소비량 174kg은 지난 5년 평균치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북한 정부가 목표로 하는 1인당 연평균 소비량 213kg(정곡 기준)에는 모자라는 양이다. 조사단이 추정한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 수준은 약 1,640kcal이다.

대두가 북한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임을 감안해, 국제기구 조사단은 2010년부터 대두를 식량수급표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평균적으로 대두의 칼로리는⁷⁾ 다른 곡물에 비해 20% 많기 때문에 곡물상당치로 환산하면 생산량이 20%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단위면적당 피종량과 2012/2013년도 목표 식부면적을 감안하면 북한의 2012/13년도 종자 필요량은 21만 톤이다.

쌀, 옥수수, 감자의 수확후 손실률은 15%, 밀, 보리, 기타 잡곡은 10%, 대두는 5%로 추정된다. 겨울/봄작물의 손실률이 낮은 이유는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확 후 손실에 대한 추정치는 3~30%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편차를 가져 지난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수확후 손실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북한 농업성은 연간 사료 필요량을 12만~15만 톤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1/12년도 사료 필요량은 곡물의 부족을 고려해 7만 5,000톤으로 감축했다. 최근 수 년간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기구 조사단은 사료 필요량을 12만톤(옥수수 10만톤, 감자 2만톤)으로 설정했다.

북한의 양곡 도정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의 쌀 도정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하게 66%로 적용했다. 다른 작물들은 대개 통곡으로 소비되므로 쌀 외에는 도정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의 실질적인 식량 재고량 통계는 구할 수 없다. 대개 식량 재고량은 9월에 소진되며 새로 수확된 옥수수와 감자가 식량배급소에서 배급되기 시작한다. 재고 수준을 고려해 2012/13년 기말에는 식량 필요량 2주일분에 해당되는 재고량을 가정하기로 한다.

북한 양정성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2012/13년도에 쌀, 옥수수, 밀을 포함해 곡물 30만 톤을 상업적으로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곡물을 얼마나 수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업적 수입 예정량은 총 공급량에는 포함했지만 개별 곡물 항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7) 대두의 유지 함유량에 따라 대두의 칼로리 함유량은 100g당 335~470kcal에 달한다(FAO/WFP, 2012.11)

표 5. 북한의 2012/13년도 식량수급 전망

단위: 천톤

	쌀(정곡) ¹⁾	옥수수	맥류	기타	감자 ²⁾	대두 ³⁾	합계
국내 공급량	1,769	2,285	160	59	449	200	4,922
가을수확 작물생산	1,769	2,040		59	84	200	4,152
겨울/봄 작물 생산			160		315		475
경사지 생산량		220					220
텃밭 생산량		25			50		75
총 소비량	1,859	2,526	247	83	449	265	5,429
식용	1,482	1,976	215	74	304	247	4,298
사료용		100			20		120
종자용	56	62	16	3	65	8	210
수확 후 손실	265	306	16	6	60	10	663
비축량	55	82	0	0	0	0	137
수입필요량	89	241	87	24	0	65	507
상업적 수입량							300
실질 부족분							207
지원 물량							35

주: 1) 쌀은 도정을 66%

2) 감자는 25% 전환률을 적용해 곡물상당치로 환산

3) 대두는 120%의 전환률을 적용해 곡물상당치로 환산

북한의 2012/13년도 곡물수입 요구량은 50만 7,000톤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곡물수입 요구량(식량 부족량)은 연간 약 100만 톤을 상회했으며, 특히 2000/01년도에는 200만 톤에 달한 바 있다. 2012년 수입요구량은 73만 9,000톤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2012/13년도 곡물 수입요구량 50만 7,000톤에서 상업적 수입 계획량 30만 톤을 제외하면 순 부족량은 20만 7,000톤이다. 이는 65,000톤의 대두와 14만 2,000톤의 곡물로 구성된다.

3. 시장 가격 동향

북한 원화로 표시된 2013년 1월의 평양 시장 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약 2.2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화 가격으로만 판단한다면 식량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식량부족 현상이 그만큼 심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북한의 쌀 수급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북한 원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환율의 급등 현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시장의 곡물 수급 상황의 변화는 달러화로 환산한 실질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북한 식량수급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은 농민시장이나 장마당의 식량 실질가격(달러화 환산 가격) 동향이다.⁸⁾ 북한의 쌀 가격 변동을 보면 2011년 11월을 정점으로 2012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가을에 수확된 곡물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와 시장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설명된다. 둘째는 정세와 관련된 것이다. 이 시기에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이 타결에 이르러 24만 톤의 대북 '영양식' 지원이 협의되는 단계였으며, 같은 시기에 중국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정세가 이 시기 북한 식량의 시장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4월 이후 시장에서 식량의 실질가격은 서서히 상승했다. 6월 들어서는 식량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 9월에는 쌀 1kg에 1달러가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식량가격은 대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012년 6월 이후의 가격 급등 현상은 국제사회의 지원 보류 소식과 봄기름에 따른 작황 불안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이후 2013년 1월까지의 식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2년 1월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이는 2012/13년도 식량 생산량이 호조세를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그림2~4).

쌀의 실질가격 변화를 연도별로 비교한 <그림5~7>을 보더라도 올해 식량 수급사정이 예년과 다르게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아직 연초 한 달 가격 자료의 비교에 불과해 조심스럽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월의 쌀 가격이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반면 올해는 전년과 같거나 더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전망할 수 있다.

8) 이 글에서 분석한 식량가격 자료는 데일리NK(<http://www.dailynk.com>)에서 제공하는 북한의 시장 쌀 가격 자료이다. 이 자료는 한 달에 수 차례 평양, 신의주, 혜산의 시장 쌀 가격과 1달러당 북한원화 환율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월별 가격 수치는 데일리NK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격을 각 관찰 일수로 가중평균한 것이다.

그림 2. 평양의 쌀 가격 추이 (2009.8 - 201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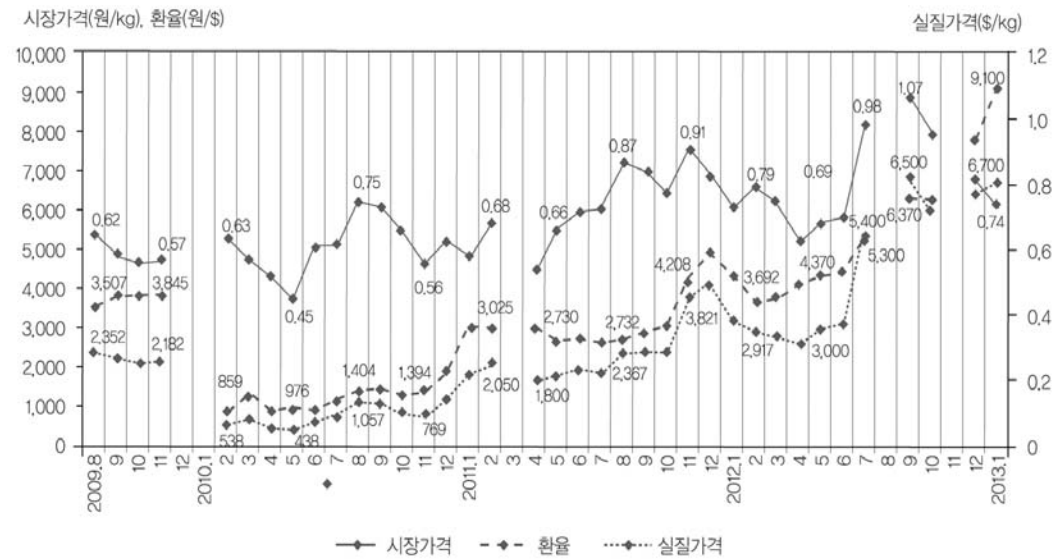


그림 3. 신의주의 쌀 가격 추이 (2009.8 - 201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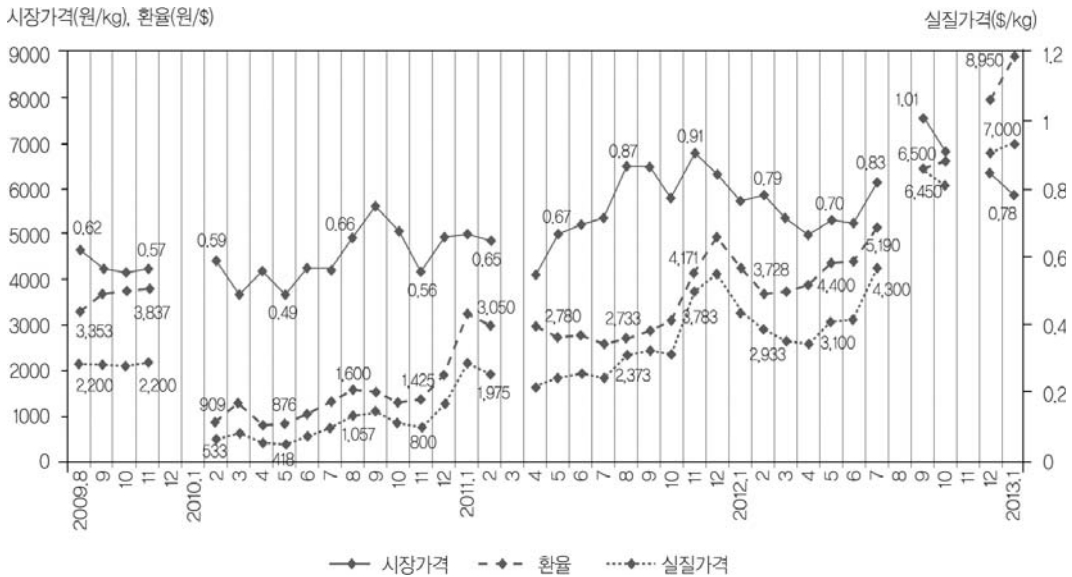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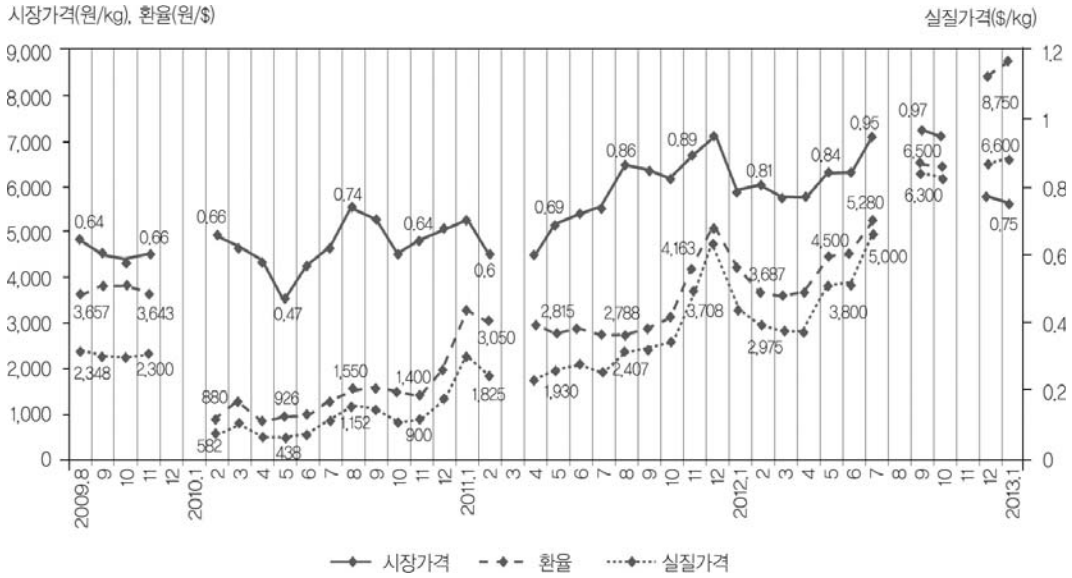


그림 4. 헤산의 쌀 가격 추이 (2009.8 - 2013.1.9)



주 : 환율과 시장가격은 관찰기간에 따라 가중 평균한 월평균값임.
 자료 :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그림 5. 평양의 쌀 실질가격 연도별 비교 (2010.1 - 201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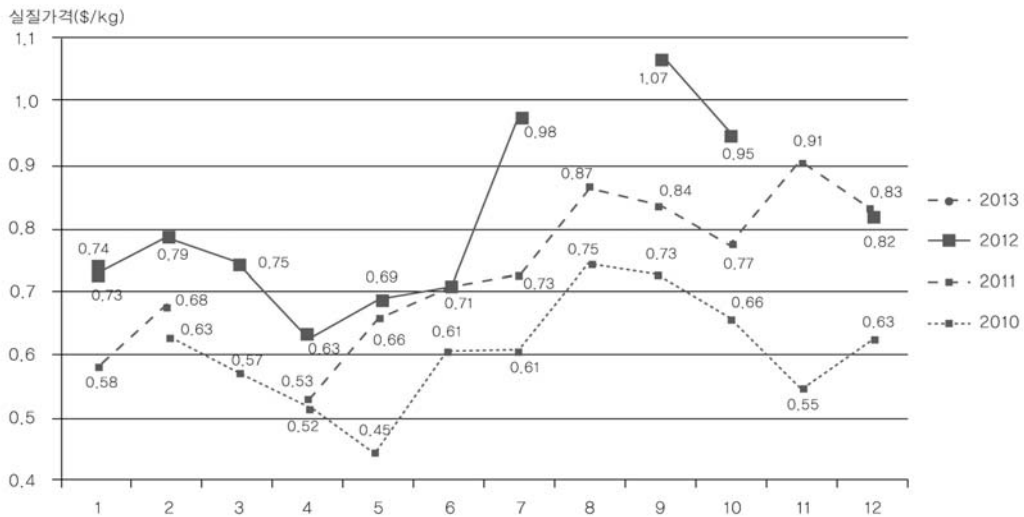


그림 6. 신의주의 쌀 실질가격 연도별 비교 (2010.1 - 201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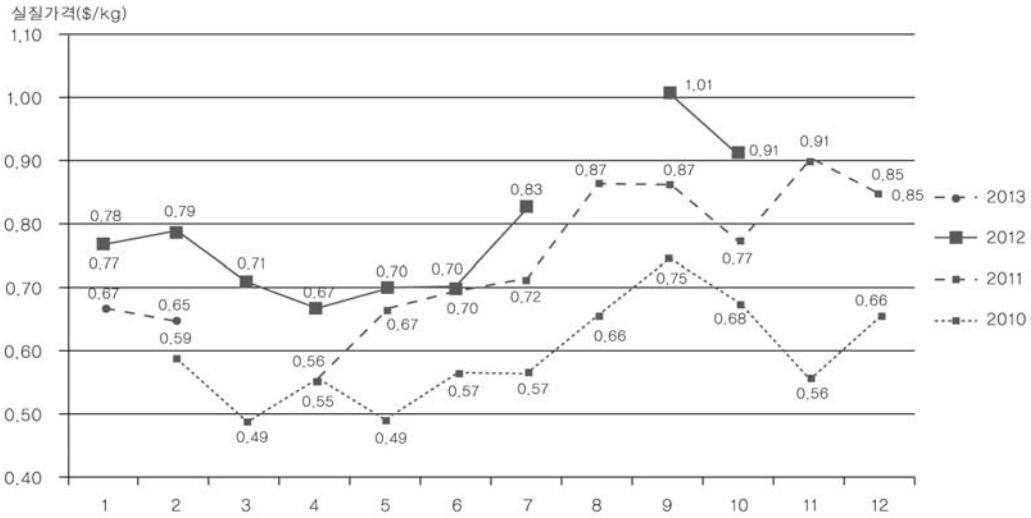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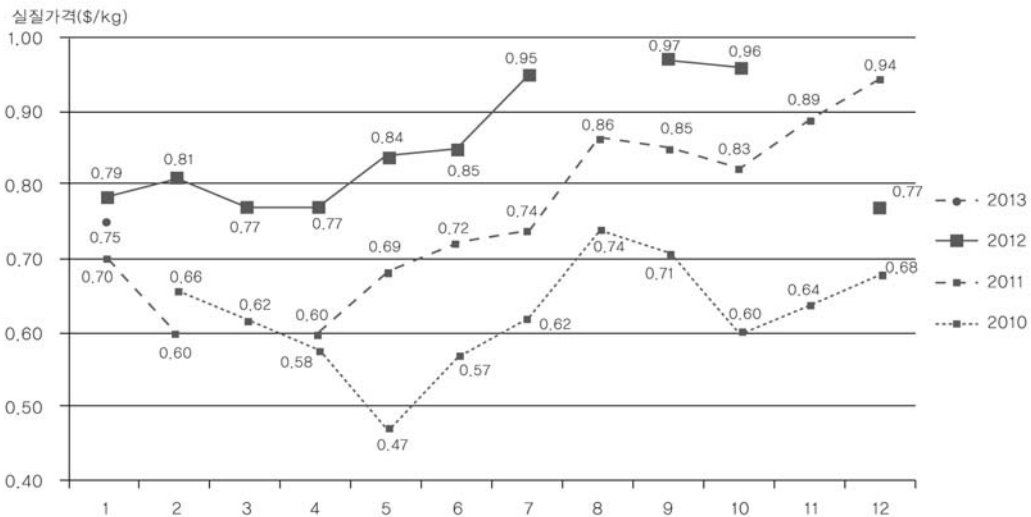


그림 7. 혜산의 쌀 실질가격 연도별 비교 (2010.1 - 2013.1.9)



주 : 환율과 시장가격은 관찰기간에 따라 가중 평균한 월평균값임.
 자료 :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4. 북한 농업부문의 단기 과제: 국제기구의 권고

북한의 올해 식량사정이 예년에 비해 좋아질 것이라 전망되지만 공급 예상량이 정상적 소요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은 여전하다. 따라서 국내 식량생산 증대와 식량안보 향상을 위해 북한 당국은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관해 국제기구는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는 대두, 어류 등 고단백질 식품 생산과 공급을 늘이는 일이다. 현재 북한에서의 대두 생산은 매우 부족하다. 1990년대 대두와 관련된 캠페인을 벌인 바 있었는데 당시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전략을 짜낼 필요가 있다.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 중 하나는 어류이다. 협동농장의 양어장에서는 ha당 연간 최대 5톤의 어류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홍수피해로 인해 양어장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다. 파손된 양어장의 긴급 보수를 위한 국제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둘째는 이모작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밀, 보리, 감자와 같은 봄작물의 생산이 감소했다. 봄작물의 생산 감소, 즉 이모작이 부진하게 된 주요 요인은 이른 봄의 변덕스러운 기상, 비료·비닐시트·연료·예비부품과 같은 주요 농자재의 부족 등이다. 특히 기계동력의 부족으로 농장들은 4~7월 농번기의 농작업에 잘 대처할 수가 없다. 또 이 시기 농작업에 있어 동기유발도 충분하지 않다.

이모작을 증진하기 위해 전체적인 이모작 전략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또 이모작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토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검토 작업에는 농자재 제약요인, 기계화 제약요인, 동기유발 체계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는 올해의 식량작물 재배에 대해서, 3월 파종 예정인 봄보리 및 감자와 10~11월 파종 예정인 겨울밀의 우량종자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는 텃밭과 같은 개별 경작지에 대한 지원이다. 북한의 농가들은 약 30평(100평방미터)의 텃밭에서 작물을 생산하고 소형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이 텃밭은 해당 농가는 물론 도시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지인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북한 전체의 식량 공급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기구 조사단은 북한 농업당국에 대해서는 텃밭과 부업밭을 확대해 발전시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량종자·비료·살충제 등 농자재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다.

PART

2

2012년 특별기획

남북농업협력의 추진현황과 과정
-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를 중심으로 -

남북농업협력의 추진 현황과 과정

—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를 중심으로—

정 영 재¹⁾

1. 들어가는 말

2013년은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기점을 맞는 해이다.

첫째, 2013년은 북한 김정은 체제 2년째를 맞는 해이자, 한국 정부 또한 새로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맞는 해이다. 2013년도 신년사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6.15 및 10.4 선언 이행을 중심으로 남북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한 대남정책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건 박근혜 정부는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두 정책은 북핵문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5.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영유아 영양 개선 사업 등 북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제한적 사업 허용 외 사실상 중단되었던 남북교류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가 새로운 전기를 맞도록 할 것이다.

둘째, 2013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관계국들의 지도부 교체에 따른 대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미국은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으며, 러시아 역시 푸틴 정부가 재출범하였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가 열렸으며, 일본은 자민당의 아베 신조 내각도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듯 주요 국가의 지도부 교체가 마무리됨에 따라 6자회담 재기 및 북핵문제 해결 등 많은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고, 남북관계 및 동북아 평화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2013년은 2003년 4월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이래 10년째 되는 해이며, 1999년 1월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100톤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남북교류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14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와 NGO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남북교류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1)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사무총장, jungyj5259@hanmail.net

된다. 지자체는 정부, 민간(국내·국제 NGO 포함)과 더불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3각의 축으로 주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은 정부 당국의 남북화해와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 민간차원의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과 분단의 심리적 벽을 허무는 교류왕래와 더불어 정부와 민간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은 극복해내는 보완자적 관계이며, 더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독일 통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간의 교류협력은 행정통합과 국민통합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²⁾

특히 지자체의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이래 지자체 교류사업은 초기 일회성 이벤트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지속가능하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가 비교적 용의한 농업 및 축산 분야의 교류가 주요한 아이템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처음 농기계나 비료, 비닐박막, 종자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단순 물자 지원에서 국한되었던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자 지원과 더불어 선진 농업 기술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개발 지원(농기계 수리·조립공장, 농업 시범 협동 농장 사업, 시설 원예, 친환경 비료 등)을 병행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된다.³⁾ 이러한 노력들은 북의 식량난 해소와 농업 기술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자체 남북교류는 남북간 신뢰구축과 민족화해의 흐름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여년 간 진행되어온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와 북한 민화협 간의 농업협력사업 평가를 통해 향후 남북농업협력사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추진 내용과 특징

가. 북한의 식량 현황

1990년 전후부터 시작된 북한의 식량난은 농업 정책 실패와 나빠진 경제 국제적 입

2) 한부영,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확대방안(2002) 1986년 자르론이스(saarlouis)시와 아이젠후텐스타트(eisenhüttenstadt)시와의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최초로 맺은 이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까지 62개 도시간의 자매결연이 성사되었다.

3) 이종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10년 성과와 과제” (남북협력사업 지자체 워크숍, 2010)

지, 연이은 자연재해 등과 더불어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 북한의 생산량은 1990년대 이르러 생산량이 400만 톤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져 '고난의 행군'이라 대표되는 심각한 기근현상에 직면하게 된다.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원조와 주체농법의 과학화 및 농법 개선·경제관리 조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의 일환으로 식량의 국정가격을 현실화(쌀 kg당 8전→44원)함으로써 종래 '무상에 가까운 배급제'를 '적절한 가격의 배급제'로 전환하고 주요 기관에서 식량 자력조달제를 강화하였으나, 2005년 10월 식량배급제 정상화 선언⁵⁾과 2009년 11월말에 전격 실시된 화폐개혁조치로 인해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조관리제 실패와 북핵으로 인한 국제적 원조 단절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⁶⁾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00만 톤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곡물 자급량이 800만 톤에 훨씬 못미치는 600만 톤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세계식량계획(WFP)/식량농업기구(FAO) '2012 북한 작황보고서'에 따르면 주곡 생산량이 2년간 연속 증가하였으며, 양은 지난해 비해 10%로 증가한 580만 톤(도정하기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쌀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268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옥수수의 생산량 또한 10% 증가해 204만 톤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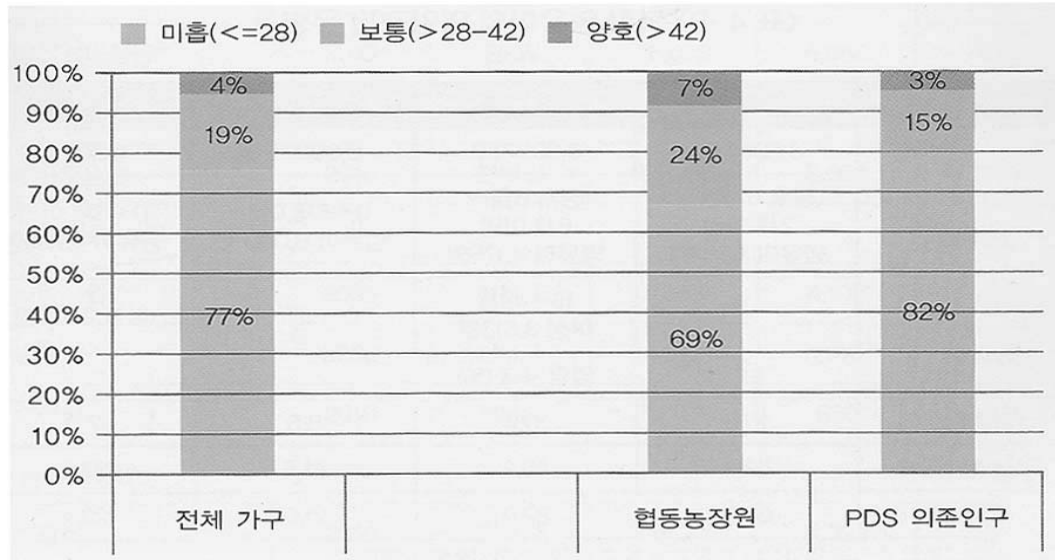
하지만 곡물 생산량이 도정 전 580만 톤에서 도정 후 약 490만 톤으로 줄어들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해결하기엔 약 50만 톤이 부족하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콩 생산량은 30% 감소하고 감자, 밀, 보리의 작황도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400만 북한 주민이 최소한 생활하기에 필요한 양인 약 540만 톤에 비해 490만 톤의 생산량으로는 만성적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도 식량 부족분 중 북 당국이 수입으로 충당할 30만 톤을 제외한 20만 톤에 대한 국제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 경기도, 「경기도 남북협력 10년 백서」, 2012.

5)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 개인의 곡물거래를 금지하고 국가가 식량공급소를 통해 독점적으로 식량을 판매하는 조치 시행. 일부 도시근로자나 당원을 제외한 산간지역 농민 등 일부계층은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고 시장이나 텃밭 등으로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짐.

6)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1.

〈 표 1. 북한 식량 소비 실태 〉



자료 : WFP, “WFP/FAO/UNICEF 긴급 북한 식량조사 보고서” (2011.3.24)

북한 가구별 식량 소비는 개선되었으나 권장 섭취량과 실제 섭취량 사이의 격차는 심각하며 인구 대부분이 식량 불안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음식에 단백질과 지방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가장 취약한 5세 이하 아동, 임산부,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필수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체의 면역력이 감소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여 이차적인 다른 질병, 특히 감염성 질환에 잘 발병하게 된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하루 빨리 북한의 자급력을 높여 국민 최소 일일 섭취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쌀이나 밀가루 같은 긴급지원도 필요하지만 만성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농법이나 농업 시설 등 선진 기술 및 농자재, 비료 등이 북한에 보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보급·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 바로 지자체를 통한 남북농업협력일 것이다.

나.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제기 배경

순수한 민간단체였던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결성된 이래 각계각층의 모금을 통한 전남 쌀과 같은 농작물 및 농자재(경운기, 농업용 비닐) 지원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지역의 직접적인 대북창구가 없으므로 인해 중앙 기관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의 성과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협의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남북화해를 위한 교류·협력사업이 지속성을 갖거나 저변확대를 피하지 못하고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개발지원 사업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까닭에 모금에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고 가장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차원만의 남북교류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류·협력방식인 지방자치단체간의 남북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남북교류는 중앙 정부의 의견을 무시한채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지자체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지원사업에서는 민간단체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상황임을 감안하여⁷⁾ 기초단체가 협의회를 설치하고 관·민 공동으로 지역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과 아이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북한 평안남도와 남한 전라남도의 지방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지역 내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에 협의회 결성을 제안한 것이다.

2002년 제안된 협의회는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3년 4월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창립되었다.

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추진 체계 및 제도적 기반

①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설립 과정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을 전개해왔던 강원도와 경기도, 제주도 등의 성과와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 의회와 민간, 기업을 포괄하는 범도민적인 사업체로 구성하였으며, 지자체가 주도해서 설립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형태를 띤 NGO 단체이다.⁸⁾

7) 이종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10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남북협력사업 지자체 워크숍, 2009.

8) 경기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 2012.

반관반민의 남북협력기구는 지방정부가 의사결정에서부터 자금 확보, 북측과의 직접적 교류 등 실질적 남

‘협의회’ 결성과정에서 지방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북측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상호신뢰 구축과 전라남도과 22개 기초단체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거쳐 전국 최초로 범도민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체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지자체간 교류를 탐탁지 않아했던 북한을 설득하여 농업 교류를 중심으로 한 평안남도-전라남도 간의 ‘지방간 교류 합의서’⁹⁾를 채택하게 되었다. 남북 지방간 교류의 물꼬를 튼 사례로써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 표 2. 초기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사업 추진 내역(2002~2004) 〉

일 시	내 용
2002년 10월 29일 ~11월 2일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대표하여 조충훈 순천시장과 정영재 사무총장이 방북하여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및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교류협력에 관한 논의, 의향서작성
2002~2003년	*전남시장군수협의회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이 전남도내 각 자치단체에 [전남남북교류협의회 결성] 제안서 제출 *북측과의 실무협의 2차례 진행 - 2003년 전남-평남간의 교류협력사업으로 평안남도 대동군에 대동농기계 수리공장을 건설하고 인근에 남북시범농장을 운영하기로 실무 합의
2003년 2월 28일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협의회를 결성하기로 최종합의
2003년 3월말	*전남남북교류협의회 대표단이 방북하여 협의회와 평안남도의 교류협력사업 합의서를 교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기로 함
2003년 4월 28일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창립총회 및 창립식 개최
2003년 5월 20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2003년 6월 12일	*화순군 의회를 시작으로 00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조례 제정 시작
2004년 2월 19일	*통일부 법인 승인

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도 NGO와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지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윈-윈(WIN-WIN)의 성과를 도출하는 주체가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 9) 조충련의 조선신보가 2003년 4월 30일자 보도에서 “우리 민족끼리 6.15이후 북남관계-10) 막지 못할 통일예로의 흐름”이라는 제하로 날로 늘어가는 남북간의 교류를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한편 민간차원에서 교류는 공동선언발표 이후 매해 늘어나고 있으며 4월에는 평안남도와 전라남도가 도 단위에서 농업 협력을 합의하는 등 이제까지는 없었던 형태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전남남북교류협의회와 평안남도의 교류협력사업을 이례적으로 소개하였다.

②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구성과 조직

협의회는 전라남도과 22개 기초자치단체, 전남도의회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도내의 기업과 종교계를 포함한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남도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고문에 위촉되며, 협의회에 참가하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전남 시군의회의장회 회장,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민간대표, 경제·종교인 대표 등 5인으로 상임대표단을 구성하여 전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기초단체에서 추천한 3명의 위원 외 전라남도의회 의원, 경제계, 민간대표로 200여명의 위원을 기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중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 외 기업, 민간대표로 공동대표단을 구성하여 민·관·기업이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협의회 구성 중 가장 특이할 점은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실무위원회는 기초단체의 주무담당부서(총무과, 행정과)의 실무자와 사무총장, 그 외 민간, 단체의 집행책임자로 구성되어 실무자가 직접 참여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기초단체에 남북교류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남북교류사업의 진행과 사무처와 담당 부서(담당 실무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하루 빨리 담당부서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림 1.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조직 구성〉



③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재원 마련

협의회는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남 각 시·군에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여 2003년 6월 화순군을 시작으로 20여개 시군에서 법적 기반을 갖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에는 전남도에서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여 기금 11억원(2012년 12월 현재)이 조성¹⁰⁾되어 있다.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지원)조례'를 통하여 전남 시 단위는 각 4천만원, 군 단위는 각 3천만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사업별로 보조금형태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교육청 및 기타 유관기관을 통한 모금운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매년 10억원 정도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출연금과 일반 대중 모금 등 십시일반으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반감도 줄일 수 있으며, 다른 시·도에 비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3.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농업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협의회는 농도(農道)인 전남의 특성을 살려 북한 평안남도와 지방간 남북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지방간 교류협력의 모델을 제시해 왔고, 중앙정부와 수도권 중심의 남북교류 협력을 지방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담당하여 현재와 같이 경기도, 전북, 인천 등 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에 나서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또한 그간 중앙정부와 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민간, 기업이 함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지방으로 끌어들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중앙에만 치중되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참여는 물론 많은 도민들이 의욕과 관심을 가지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지자체의 남북간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가교와 창구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0) 전라남도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10억 원 규모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7년까지 5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임.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4억에서 9억 원의 도비 출원과 이자수입을 적립해 5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는 방침임.

가. 대동군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 및 농기계 지원사업

2002년 10월 협의회는 북측 민화협-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전남-평남 지방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한 후 순수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북한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평남 대동군 농기계 수리공장’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대동군은 평안남도 남서부에 있는 군으로 평양과 인접해 있다. 평안남도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곡창 지대이며, 평의선이 통과하며 대동강 수운도 활용되는 등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면적은 300km²로 군소재지인 대동읍과 21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는 129,761명(2008년)이다.¹¹⁾ 경작지 면적은 군면적의 61.4%로서 도평균 경작지비율(20%)보다 훨씬 높다. 경작지 면적에서 논은 61.4%, 밭은 30%, 과수밭은 6.4%이다. 곡물재배 면적에서 벼는 62.5%, 강냉이는 25.6%를 차지한다.

2003년부터 협의회는 남측 벼농사 농법(소식 이앙법)을 적용한 시범농장을 확대·운영하여 생산성 증대 효과를 실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고수해온 재래농법(주체농법)에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이 개발하지 못한 종합수확기(콤바인)의 제조기술 이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농기계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남측의 벼 수확용 콤바인 100대, 경운기 100대, 이앙기, 파종기를 비롯한 다양한 중소형 농기계 지원과 함께 못자리용 비닐 3000롤,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농기계의 수리·점검과 기술 지도를 위해 ‘농기계 수리공장’을 건설하고 이에 따른 공장 건설 및 설비 자재를 지원하였다.

이번 협력사업은 국산 농기계의 효율성과 우수성에 대한 북측의 평가가 뚜렷이 확인되고 북한 재래농법(주체농법)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 그리고 남북 공동의 민족형 농기계 공동개발 협력사업의 계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업이었다. 우선 남측에서 지원한 육묘파종기와 육묘용 온실에서 육묘상자를 육묘한 후 국산 이앙기를 통해 협동농장 내 시범 농장(10ha)에서 북측 이앙기와 비교 실험한 결과 국산 이앙기의 효율성과 우수성을 북측 관계자들이 인정하였고, 경운기 또한 논과 밭에 모두 적합하고 사용이 용이하며 고장이 잘나지 않고 특히 부속작업기의 효율성이 높아 평가가 대단히 높았다. 콤바인이 북측 관계자들로부터 평가가 가장 높았는데 벼 수확철 인력난과 수작업시 손실율을 대폭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콤바인의 효용성을 높이 인정하였다. 북한에선 한사람이 일일 최대 200평 정도의 수확작업을 하는데 비해 콤바인은 하루 4,500평 정도를 수확할 수 있어 25명 정도의 수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

11) 위키백과 평안남도 대동군 <http://ko.wikipedia.org>

다. 사람이 수확작업을 할때 15~20% 정도의 벼손실율을 발생하는데 북한의 표본조사로는 7%의 손실율에 그치고 있고 운전기사의 수준이 좋을 때는 4%정도에 그친다고 하였다.

또한 애초에 북측이 우려했던 파종간격(남측은 30cm, 북측은 20cm)의 차이로 인한 단위면적당 벼포기의 수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¹²⁾ 북측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남측에서 지원한 이앙기로 이앙(1평당 80주 이앙)한 논과 북한 이앙기로 이앙(1평당 120~150주 이앙)한 논 수확량을 비교한 결과 적게 묘를 이앙한 우리측 논이 1정보당 6.5톤의 고수확을 하였다. 이에 북한 농업과학원은 그간 자신들이 북측 현실에 맞다고 주장한 농법(밀식재배법과 성묘재배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4년도에 대규모의 못자료용 온실과 이앙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향후 주요사업의 하나로 콤바인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남북 공동의 민족형 농기계 공동연구개발 협력사업의 계기를 형성하였다. 남에서 북으로의 일방적 지원이 차후 남북경협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운기 생산협력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농기계회사의 대북진출과 농기계기술의 교류에 대한 계기를 만들고 국내 중고 농기계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국내외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2003년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와 2004년 7월 조문 문제, 탈북자 문제 등으로 방북이 용이치 않아 기술지도 및 이전,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원물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현황(가동시간, 고장여부 등)과 생산성 등에 관한 결과자료를 문서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나. 평양 남새비닐온실 친환경 시설원에 기술 지원 사업

2005~2007년에 걸쳐 시행된 비닐온실 건설 사업은 채소 및 원예 작물 재배용 비닐 하우스 단지 조성 사업으로 평양시 낙랑구역 선봉동에 하우스 4000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이와 연계하여 친환경 농법 및 작물 재배 기술지도가 이루어졌다.

평양시 낙랑구역(樂浪區域)은 평양직할시에 있는 행정구역으로 대동강의 남안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282,681명이며, 행정구역은 21동 9리로 이루어져

12) 2001~2003년도 3년간에 걸쳐 북한농업과학원의 미림, 용성 시험농장과 대동군 시범농장에서 북한의 승용형 이앙기와 우리의 보행형 이앙기를 각각 이용하여 비교 시험함.

있다. 약 90km² 면적의 낙랑평야가 있어 평양직할시의 주요 농업생산지로 주로 쌀·옥수수·무·배추·사과 등을 생산한다. 강 연안을 따라 둑이 건설되어 있으며 많은 양수장과 관개시설들이 설치되어 안전한 농업생산지역으로 변모하였다.

평양 남새 비닐온실지원사업은 북측의 전문기관인 평양시 남새공급소에 선진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낙후된 농법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력 회복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이를 남북이 공동 연구·개발함으로써 추후 경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묘 온실 1동(300평/ 알루미늄 커튼, 난방시설, 육묘시설 등)과 재배온실 7동(2,100평,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3중 비닐막, 난방 및 환풍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온실에서 생산된 작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냉장창고(냉장 3칸, 냉동 1칸/ 각 20평)를 건설하였다. 또한 남새공급소 운영 기반을 위해 생산된 작물의 유통과 퇴비 운반을 용이하게 하는 냉동탑차 및 트럭을 지원하였고, 비닐하우스 주변 부지를 특화된 농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도로 정비 사업 등 제반 사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품질 좋은 채소를 생산해 나가기 위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및 전남대학교친환경농업사업단과 함께 친환경 농법인 키틴미생물¹³⁾과 친환경 비료, 종자 등을 지원하고 북측에 기술 이전과 함께 북측 농업기술원과 공동 연구함으로써 북측에 맞는 농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측 전문가가 공급소를 방문하여 육묘 시범 및 기술 지도를 하고 키틴 미생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는 등 생산량 증대와 더불어 남북의 건강한 농업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파프리카나 피망, 메론¹⁴⁾과 같은 고급 작물의 종자를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북의 농업 기술력을 높여내고 남북상생의 농업이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 그 외 농업 관련 협력 사업

협의회에서는 주요 사업 이외에도 모금이나 타 단체간의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농업 관련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13) 키틴(게겉질)분해 미생물 제제: 게 및 새우의 겉질에 들어있는 키틴성분을 먹고사는 미생물을 이용해 만든 농약 겸 비료를 말하며, 키틴분해 미생물에서 병을 죽이는 효소와 양분, 천연 항생물질 등 여러 가지 효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 건강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전남지역에서 이 미생물을 이용하여 토마토, 배추, 벼 등을 재배하여 일반 비료와 농약사용에 비해 품질이 월등히 높고 생산량도 많아짐.

14) 재배 작물: 피망, 파프리카, 메론, 오이, 참외, 배추, 토마토, 수박 등
2006년 7월 1동을 대상으로 시범재배해본 결과 한달동안 오이 일 200kg 수확

2004년에 남측의 우리밀 살리기 광주전남운동본부와 함께 우리밀 종자(580ha, 112만 평/ 1,680톤 수확 가능) 및 밀 종자 파종을 위한 파종기 5대를 평남 대동군에 지원하였다. 광주전남의 소비부족으로 인한 잉여생산물인 밀을 북한에 보냄으로써 전남 밀 농가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기후 적응력이 강한 우리밀 종자를 보냄으로써 북측의 식량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우리 종자가 북한에 들어가 재배되는 첫 사례로 남북 종자 교류와 남북 농업협력의 선두로 전남이 자리잡은 한편, 우리 밀 종자 교류를 시작으로 벼농사 지원 및 교류까지 남북 종자교류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2004년 10월 '전남쌀 대장정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품질 좋은 전남쌀 50톤을 평안남도 어린이에게 보냄으로써 높은 품질의 전남쌀을 북한 지역에 알리고자 하였다. 이는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전남쌀을 북측에 지원함으로써 북측이 전남에 공식적인 감사의 뜻을 전해오고, 협의회가 북측에 요구하는 사항을 다음연도 사업에 적극 반영키로 하는 등 예상외의 큰 성과를 거뒀다. 2005년에는 평남 수해 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하여 총 3,700여만원을 모금하고 전남쌀 15톤을 지원하였다.

2005~2006년 2년에 걸쳐 북측이 봄철 파종기를 맞아 국내 민간단체에 못자리용 비닐을 요청해 오며 따라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회원 단체들과 함께 파주-개성 육로를 통해 못자리용 비닐박막을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비닐박막 50만㎡(1,042롤)을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통일부와 매칭 펀드(matching fund)방식의 남북교류협력기금지원을 받아 1,00만 평방미터(단체 부담 50만㎡ + 통일부 기금 50만㎡)를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평남 대동군에 100ha 규모의 공동모내기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남측의 우량 벼 종자(벼종자(상미벼)-5톤/ 육묘상자 30,000개)와 농업자재(소형 농기계 15대/ 비료 80톤/ 이앙기 5대)를 지원하였다. 공동 모내기와 수확을 통해 남북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남북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북측의 사정으로 남북공동 모내기 행사가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남측의 우량 벼종자와 농기계, 기타 농자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체농법(밀식재배)을 고수하던 북측이 점진적으로 남측 재배방식인 소식재배를 도입하고, 기계화를 통해 식량 증진 의지를 보여 통일농업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북측이 농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위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안남도 청산리 농민종합편의소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연건평 1,033㎡(315평) 2

층 규모의 이·미용시설 및 목욕탕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 자재 및 목욕, 이·미용용품 46종을 지원하였다. 기존 제안된 적이 없는 사업으로 농민직접이용편의시설을 건설한 것은 최초의 사례이자 평남일선 ‘리’에 편의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식량 등 현물 지원 위주로 진행되어 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저변을 넓혀가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평양 만경대 구역 칠골동에 위치한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발효콩 공장과 발효콩 빵 1·2공장 사업에서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발효콩의 주원료인 콩(대두)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 다니엘로프카 통일농장에서 고려인들이 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콩을 계약재배하여 북측에 지원한 것이다. 이것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부지와 노동력, 해외동포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등이 결합된 사업으로 남북만이 아닌 해외동포들의 삶의 질까지 높여주는 협력 사업이다. 협의회는 통일농장에서 수확한 평화콩 90톤을 2009년 2월 평양 발효콩 공장에 전달하였다.

4. 결론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 정부 또는 특정 기업 중심의 남북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복합적이며 다원화된 채널을 통해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지자체의 능동적인 참여는 남북교류가 중앙 정부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지원 활성화의 새로운 물줄기로 평가될 수 있다.¹⁵⁾ 이렇듯 많은 장점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남북관계가 다시 호전되어 농업을 포함한 다방면에서의 교류가 다시 활발해져야만 할 것이다.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된다면 오랜 관계 단절로 인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하여 기존 교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을 보완시켜 보다 발전적인 남북교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와 지자체, 정부 등 모든 남북교류 주체자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북한 개발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단체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한 실정에 맞는 남북 교류 및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시·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자기 지역 특색에 맞고 민간이나 중앙 정부가 미처 진행하기 어

15) 강동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발전방안”(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10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관련 워크숍, 2009)

려운 특화된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중앙 정부는 대북 협상력을 높이고 남북교류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완화하며 북한 식량난 해소와 생산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는 시범농장을 통해 진행되어 온 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지자체 및 정부와 함께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농법 및 기술 전수와 북한의 농업과학기술원과 협력하여 북의 기후와 토지 및 기타 여건에 맞는 선진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무상 식량 지원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및 신뢰를 회복하고 지자체간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며, 민간단체와 지자체 사업을 취합하여 성과 및 문제점을 연구·분석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업관리체계, 농산물 유통,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관련 조례를 통해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조례를 통한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은 북과의 사업 협의에서 부득이하게 변동되는 사업 규모나 내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보니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금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다 안정화되고 효율적인 북한 개발지원사업을 위해 현재 민간단체에만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의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 농가의 안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식량, 농기계, 비료와 같은 대규모 정부 지원시 일부를 전남을 통해 지원하거나 정부와 전남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전남쌀 및 재배작물, 전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남의 다년간의 농업협력사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농업 개발지원은 농업시설, 생산, 기술 등 한 분야에 국한된 단일 사업이 아니라 유통, 용수, 위생 등 SOC 전반에 걸쳐 연계된 사업이다. 식량난을 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농업 관련 분야의 안정 및 선진화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배 작물 및 농업 시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도로 정비, 비닐하우스, 농기계·비료공장을 위한 안정된 전력 시설, 오염되지 않은 물을 주기 위한 급수시설, 재배 작물로부터 유해한 해충이나 전염병이 옮지 않도록 하는 위생 시설 등 전반적인 사회 재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이 모든 사업을 지자체에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

자체를 한 기금 지원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2006년 10월 경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지방정부-지방정부간의 정보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실무협의회를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기구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 맞는 남북교류 법안을 제정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 부서를 개설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남북교류담당자가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전남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에 실무위원이 있으나 총무과나 행정과의 담당관으로써만 존재한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남북교류협력담당자가 전문성을 갖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적어도 광역단체인 전남도에 강원도나 경기도 같이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북은 지난 5년간 많이 변화하였다.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면서 국방·외교·경제 다방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전과 같은 눈으로 북을 바라본다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변화된 북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축하며 하나된 남북을 위해 노력한다면 통일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닐 것이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3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신년사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3년 1월 1일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였으며 민주조선, 로동신문에도 게재됨. (민주조선 13.1.1, 로동신문 13.1.1)

경제부문 주요 내용

- 경제강국 건설은 오늘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임.
- 올해 모든 경제사업은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잘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늘리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경공업부문]

- 경공업공장에 대한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함.

[농업부문]

-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함.
- 축산과 수산, 과수부문을 발전시켜 인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풍족하게 해야 함.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 부문을 확고히 앞세워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다져야 함.
- 특히 석탄, 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함.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을 일으켜야 함. 나라의 전반적 과학 기술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
-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늘리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해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 1995~2013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1995	· 혁명적 경제 전략의 관철을 통한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	· 협동적 소유, 전인민적 소유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주체농법의 관철로 알곡생산목표 달성
1996	·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인민생활 향상 및 자립적 경제토대 구축	·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를 주인답게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 달성
1997	· 자력갱생의 구호 하에 경제적 밀착을 최대한 동원이용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토건설로 부강한 조국의 토대 구축	· 주체농법에 따라 농민들의 지향,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쌀 풍년, 고기풍년 마련. 초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초식가축 사육을 전 군동적 운동으로 계속 전개
1998	· 경제건설은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전선임.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민족경제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함.	· 농업생산의 증대, 먹는 문제 완전 해결 - 종자문제해결, 2모작 확대 - 농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민의 의사와 자체 실정에 맞게 수행 - 초식가축을 기본으로 축산업의 대대적인 발전
1999	·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주요한 과업.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에 경제적 힘이 밀반침될 때 명실 공히 강성대국 지위에 올라설 수 있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전반을 자기의 궤도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	· 농사에 전 국가적인 힘을 넣어 먹는 문제 해결 - 감자농사혁명 -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에서 농업구조개선 - 2모작 확대와 종자혁명의 계속적 추진 - 토지정리사업의 대대적 전개
2000	· 올해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임. · 당의 경제정책을 옹호 관철해 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하나씩 추켜세워야 함.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함.	· 주체농법의 철저한 관철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2모작 확대, 초식가축 사육 증대 - 양어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 - 토지정리와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 -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적극적인 추진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3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건설의 중심 과제는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선하는 것임.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전력, 석탄, 금속 및 철도운수부문임. -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석탄생산 증대 - 금속공업의 설비 현대화를 통해 철강재 생산의 활성화 - 철도운수를 정비 보강하여 증가하는 수송수요 보장 · 경공업부문에서는 1차 소비품과 기초식품의 생산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임. -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의 지속적 추진 - 2모작 면적의 확대 -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를 위주로 양어 확대 - 현대적인 축산기지 건설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제일주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임. - 채취,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 경제 관리의 개선 및 완성 · 제도 제일주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 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여 농업생산 증대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공사의 조속한 완료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 운영해 나가야 함. ·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바탕으로 한 인민경제활성화 · 경공업의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인 생산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배우고 최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임 · 모든 부문, 단에서 현대화의 뚜렷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기술개건사업을 추진해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함. ·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 세기 맛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3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라는 구호를 들고 힘찬 투쟁을 벌여야 함.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된 힘을 넣어야 함. 화학발전소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중소형발전소들을 쓸모 있게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함. 석탄공업과 금속공업발전에 힘을 집중하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감자혁명과 두벌농사를 발전시켜야 함. 공농사와 과수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고,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다그쳐야 함. 평양시와 도,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문제해결은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음. 전체 인민은 혁명적 각오로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함.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발전시키며,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함.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공급해야 함.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공농사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함. 다수확품종을 심고, 비료와 농약을 보장해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농업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발전에 힘을 넣어야 함.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함.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함.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보장해 줘야 함. 전력공업부문의 전력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는 말을 지침으로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떨쳐나서야 함.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함.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 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공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함.

표 1. 신년 공동시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3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 하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새로운 생산적 양상을 일으켜야 함. 경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 소비품 생산을 늘려야 함. 경제부문 지도일꾼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간지게 하며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해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줘야 함.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수로)공사와 토 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해야 함.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함. 주된 과업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면서 우리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건을 다그치는 것임. 경공업에서는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함. 축산기지, 양어기지, 기초식품생산기지가 은을 내게 하여야 함.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이 경제강국 건설의 전초선을 튼튼히 지켜야 함. 전기, 석탄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하며, 금속공업은 철강재 생산을 늘려야 함. 철도운수부문은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함.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채취, 기계, 화학, 건재, 임업부문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함.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 방침관철에서 주인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함.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알곡 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야 함.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임 인민경제의 주체성 강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통해 자립민족경제를 발양시켜야 함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워야 함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내각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는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음.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함. 지난 10년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하며 인민군대에서처럼 공농사를 잘해나가야 함.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함.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함. 현대적인 축산기지,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를 잘 운영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3

연도	경제 전반	농정방향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 생산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해야 함. · 금속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 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며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며 전군중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함. · 농업근로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함.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선행부문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높은 생산적 양상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추진해야 함. · 경제지도일군들은 진취적이며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함. 계획규율, 재정규율, 로동행정규율을 철저히 확립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함. · 일군들은 경제관리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지녀야 하며, 여러 가지 경제적 공간을 옹계 활용할 줄 알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 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지가 현실에서 커다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함.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 해로 구현해야 함. ·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으로 해야 함. · 4대 선행부문은 인민생활 대고조 불길의 ‘밀붙이’ 됨 · 화학공업기지를 생산정상화 해야 함. · 농업은 인민생활 문제 해결의 생명선으로 인식해야 함. · 자력갱생 원칙 철저히 구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 ·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함. ·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려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함.

표 1. 신년 공동사설의 경제 및 농업분야 주요 내용(계속), 1995~2013

연도	경제 전반	농정 방향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함. · 경공업 부문에 필요한 원료를 자체로 해결하며, 질 좋은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함. · 인민들의 먹는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함. · 부족한 전력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함. · 석탄을 제때에 보장하는 동시에 새 탄밭을 개발해야 함. · 평양시의 면모 일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들의 먹는문제, 식량문제의 해결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핵심사항 ·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와 우리식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농업생산 목표수행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설비를 제때에 보장해야 함. · 현대적인 축산기지, 가금기지, 대규모과수농장, 양어기지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해야 함.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잘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늘리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경제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경공업공장에 대한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함. ·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고, 축산·수산·과수부문의 발전을 통해 인민의 식생활을 개선해야 함. · 석탄, 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함. ·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늘리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함. · 축산과 수산, 과수부문을 발전시켜 인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풍족하게 해야 함.

□ 농업정책

- 한 해 농사의 결실과 과학기술적 총화 (로동신문 10.24)
 - 당의 농업방침 관철에서 기본은 농업과학기술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것임. 해마다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 매해 농사정형을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하고 다음해 농사계획을 빈틈없이 수립하면 농업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음.
 - 농업부문의 일군, 기술자, 농업근로자들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포전별, 필지별 특성에 맞게 종자를 바로 선택하고 심었는가를 실수확고를 놓고 검토해야 함.
 - 지력이 높아야 다수확품종이 능력을 낼 수 있음. 땅 상태를 파악하고 실제로 얼마만큼의 소출을 냈는가를 따져보아야 함. 또한 화학비료를 적게 쓰거나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 함.
 - 거름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적극 받아들여야 함. 또한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비배관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시기별로 조사분석해야 함.
 -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종자, 지력, 기계수단, 영농물자보장 등에 대한 정확한 타산과 노동력조직, 회계업무를 비롯한 경영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농업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
- 전국의 본보기 농장, 과학농사에 앞장서다 (로동신문 10.29)
 - 전국 농촌의 본보기농장의 일군, 작업반초급일군들이 수십건의 앞선 기술을 올해농사에 도입하여 알곡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 성과를 거둬.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해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임. 기술자들이 논벼재배기술에서 나서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종자문제해결의 담보를 마련함. 또한 유기질복합비료원료를 통해 지력을 높임.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층적지토양에서의 깊은층들취갈이(심토경운)와 마른씨레의 배합효과를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하여 해명함. 또한 보습에 비롯한 필요한 농기구를 자체로 만들어 영농작업에 이용함으로써 같이능력을 높임.
 -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에서는 논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품종배치, 벼 모기르기, 비료주기 등 영농공정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함. 또한

생육조건에 맞게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함.

- 현재 본보기농장에서는 올해 농사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음해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음.
- 제3차 순환식생산체계에 관한 농업부문 과학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12.3)
 - 제3차 순환식생산체계에 관한 농업부문 과학토론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됨.
 - 김일성종합대학,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를 비롯한 과학교육단위와 농산, 축산, 과수, 잠업 등 농업부문의 일군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가 토론회에 참가함.
 - 토론회에서는 농산, 축산, 과수, 잠업분과별 과학기술발표회가 진행되었으며 실천적 의의가 있는 280여 건의 연구논문이 발표됨.
 - 참가자들은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늘리고 집짐승먹이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유기농약생산과 이용 등 유기농법을 도입하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함.
 - 논벼재배-오리기르기 배합구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 알곡과 고기생산을 높인 경험, 염소, 돼지, 닭기르기를 위한 생산체계확립에서 얻은 경험, 메탄가스생산을 결합한 농업과 축산의 생산체계도입에서 얻은 기술경험을 비롯한 제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 농업발전의 튼튼한 도약대 마련 (로동신문 12.31)
 - 알곡생산을 더욱 늘릴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됨. 염주군을 비롯한 각지 농촌에서 우렁이유기농법 도입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남. 또한 강원도의 모범 사례에 따라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후민산염 등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농사짓기 위한 열풍이 일어남.
 - 올해에 방방곡곡에서 간석지개간사업이 활발히 추진됨.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과 대계도간석지 내부망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수천 정보의 간석지가 옥토로 전변됨. 황해남도건설지건설연합기업소에서는 룡매도간석지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킴.
 - 과수업에서도 전진이 이룩됨. 고산과수농장 능력확장 4단계 공사가 추진되어 1,000여 정보의 과수원이 새로 정리됨. 북청군에서는 수백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고 키낮은사과나무밭에 정보당 100톤 이상의 거름을 실어내는 등 과원건

설에서 발전이 이루어짐.

- 축산물 생산도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강원도의 세포등판을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시작됨.

2. 벼농사

□ 가을걷이(추수)

- 벼 가을걷이 적기보장에서 중요한 문제 (로동신문 9.15)
 - 벼 가을걷이 적기를 정확히 보장해야 낫알허실을 없애고 논벼 정보당 소출을 높일 수 있음.
 - 가을걷이 적기는 벼이삭이 팬 다음의 날수를 타산하거나 벼잎이나 벼알의 색깔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정함.
 - 같은 품종이라고 해도 가을철 온도와 해비침률에 따라 여무는 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이삭팬 후의 날수와 함께 벼잎이나 벼알의 색깔을 보고 가을걷이 적기를 정하는 것이 좋음.
 - 벼 가을걷이 적기보장에서 올해 기상조건을 고려해야 함.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반적 지방에서 평년에 비해 벼이삭패기 전까지의 10℃ 이상 기후적산온도는 평균 156℃, 15℃ 이상 기후적산온도는 196℃ 더 높아짐. 실제로 논벼이삭패기가 전 지역에서 5~10일 정도 빨라짐.
 -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에서는 자기 지방의 기상 및 토양조건, 품종 특성에 따르는 벼 가을걷이 적기를 철저히 보장하여 애써 가꾼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 들여야 함.
- 벼 가을걷이 시작 (로동신문 9.23)
 - 서해벌방의 농촌에서 올해 벼 가을걷이가 시작됨.
 - 지난 9월 7일 안악군에서 벼 가을걷이를 먼저 시작한데 이어 사리원시를 비롯한 황해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남포시, 평양시가 벼 가을걷이에 들어감. 이로써 9월 20일 현재 서해벌방의 모든 도(시)에서 벼 가을걷이가 시작됨.
 - 농업성과 각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올해 기상조건에 맞게 시, 군, 농장에서 벼 가을걷이 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는 벼 가을걷이 첫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음. 재령별, 연백별 이 벼 가을걷이에서 앞서나가고 있음. 안악군에서는 논벼의 품종별 특성과 지방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벼 가을걷이 시작날짜를 대담하게 앞당겼음.
 - 황해북도에서는 사리원시가 벼 가을걷이에서 앞장서고 있음. 송림시, 봉산군, 은파군, 서흥군, 평산군, 황주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시, 군에서도 벼가을걷이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음.
- 혁신적으로 올해 농사를 결속 (로동신문 10.26)
- 가을걷이에서 낱알허실을 막기 위해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벼단 건조를 잘 하는 것임.
 - 올해 가을걷이 시기에 비가 자주 내려 포전의 습기가 많아짐. 이런 조건에서 포전에 벼단을 세워놓으면 벼이삭이 마르는 기간이 길어지며 또한 종전처럼 포전마다 동가리를 크게 쳐 놓으면 많은 낱알이 허실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각 농장에서는 이삭이 잘 마를수 있게 벼단을 묶는 족족 모두 논두렁 위에 서로 어기도록 더미를 작게 쌓았음. 또한 매일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미 쌓아놓은 벼단을 뒤짚음.
 - 또한 다음해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 가을걷이를 끝내는 족족 필지별로 올해 농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다음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실속있는 방도를 찾도록 함.
- 탈곡기마다 만부하를 걸어 (로동신문 10.28)
- 재령별 농촌에서 낱알털기가 한창임. 오국협동농장이 낱알털기에 앞장서고 있음. 농장에서는 벼탈곡기의 가동률이 높아지는데 맞게 모든 농장원이 교대작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만부하를 걸도록 하고 있음.
 - 강교, 래림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에서도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벼단실어들이기를 앞세워나감으로써 균적인 낱알털기가 일정대로 진척되게 하고 있음.
 - 신천군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이 영농공정 간 맞물림을 잘 하면서 낱알털기에서 날마다 혁신을 보이고 있음. 새길, 백석협동농장과 새날농장이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에서 앞서나가고 있음.

□ 낱알털기(탈곡)

- 낱알털기를 다그친다 (로동신문 10.18)
 - 본보기농장을 비롯한 영도업적단위에서 벼가을을 끝낸 기세에 맞춰 낱알털기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벼가을을 끝낸데 이어 태천군 은흥, 강서구역 청산, 재령군 삼지강, 안악군 오국, 룡천군 신암, 함주군 동봉, 평원군 원화,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음.
 -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의 작업반에서는 낱알털기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음.
 - 룡천군 신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를 비롯한 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여 벼단꺼들이기를 앞세우면서 낱알털기속도를 지난해보다 훨씬 높이고 있음.
-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를 다그친다 (로동신문 10.22)
 - 정주시당위원회 지도밑에 시급기관의 일군들이 농자에 내려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농업근로자들이 낱알털기에서 속도를 내도록 하고 있음.
 - 침향협동농장에 나간 시당위원회책임일군은 낱알털기준비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할 수 있게 필요한 부속품을 해결해주고 있음.
 - 강남군에서는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급기관 일군들이 협동농장을 한 개씩 맡아 짧은 기간에 낱알털기를 끝내도록 하고 있음.
 -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짧은기간에 벼단꺼들이기를 끝낸데 맞게 탈곡기마다 만부하를 걸어 낱알털기를 빠르게 실시하고 있음.
- 낱알털기 성과 확대 (로동신문 10.27)
 - 각지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농사를 결속하기 위해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에 속도를 내고 있음. 전국적으로 벼가을이 지난해보다 앞당겨 결속된데 이어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 실적이 계속 오르고 있음.
 - 농업성 일꾼들은 협동별에 나가 벼단꺼들이기와 낱알털기에 집중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 해나가고 있음.
 - 평양북도의 일군들은 낱알털기를 제때에 끝낼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매일 많은 양의 벼를 털어낼 수 있도록 일판을 크게 벌려나가고 있음.

- 신의주시, 동림군 등지에서는 트랙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벼단꺼들이기를 빨리 하는 것과 동시에 탈곡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덕군과 안주시에서는 낱알털기가 벌어지는 현장에 나가 농장, 작업반에서 교대별로 노동력 조직을 짜도록 하고 있음.

○ 낱알털기 마감단계 (로동신문 11.14)

- 신의주시의 농촌부문에 낱알털기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시당위원회에서는 낱알털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해 해당부문 일군협의회를 여러차례 진행하고 모든 일군들이 협동농장 작업반에 내려가 낱알털기를 적극 도와주도록 함.
- 시험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모든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낱알털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함. 시에서는 공장, 기업소에 룬전기재를 동원하여 협동농장의 탈곡장에 벼단을 집중수송해주도록 하는 한편 전력보장대책도 세워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함.
- 련상, 석하, 락원, 토성협동농장 및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도 낱알털기를 빠르게 실시하여 90% 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이룸.

□ 농사차비

○ 빈틈없이 계획하고 실천하자 (로동신문 11.18)

- 한해 농사결속과 다음해 농사차비가 겹치는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임. 농사차비를 잘해야 다음해 영농공정을 적기에 보장하고 알곡생산을 늘릴수 있음.
- 농사에서 기본은 종자임. 논벼, 강냉이, 콩 등 알곡작물의 종자소요량과 확보 상황을 품종별로 따져보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함. 종자고르기와 보관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해야 함. 축산기지에서 생산을 활성화하여 질 좋은 거름도 많이 생산해야 함. 올해농사에서 덕을 본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

비료와 후민산염 등 효능 높은 유기질복합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가을같이 계획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세우고 추진해야 함. 모판자리, 두벌농사 적지, 붉은 땅부터 시작하여 땅이 얼기 전에 논밭을 갈아엎어야 함.
- 모판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함. 땅이 얼기 전에 모판만들기를 하여 모판에 덮을 흙을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함.
- 겨울철 농기계수리와 중소농기구 확보 및 생산을 추진해야 함. 또한 흙갈이, 냉습지 개량 등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며 양수기수리와 관개구조물보수, 제방공사와 수로청소 등 다음해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다음해 농사차비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12.12)

- 황해남도의 일군, 농업근로자들이 다음해 농사차비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다음해 농사차비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함. 또한 일군들이 농장에 나아가 농업근로자들에게 다음해 농사차비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 주고 있음.
- 도안의 농촌에서는 낱알털기를 끝내는 족족 트랙터와 부림소를 모판자리같이 집중시킴. 해주시, 신천, 청단, 은천, 배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농촌에서 모판자리갈이를 빨리 끝냄.
- 또한 흙보산비료와 생물활성퇴비,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후민산염을 비롯한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재령군 삼지강, 안악군 오국, 신천군 새길협동농장이 이 사업에서 앞장서고 있음.

○ 농사차비로 한창인 농촌을 적극 지원 (로동신문 1.8)

- 평안남도에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음.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급 기관, 시, 군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은 농촌을 적극 도와주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질 좋은 거름과 영농자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평성시, 안주시, 숙천군에서는 미리부터 거름생산과 영농자재확보를 위한 사업을 통해 실적을 올리고 있음. 안주시와 숙천군에서는 화물자동차와 소달구지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질 좋은 거름을 농촌에 보내는 성과를 거둬.

- 강원도 원산시의 공장, 기업소, 인민반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많은 양의 기름을 시안의 협동농장에 보내줌.
- 자강도에서는 희천시, 시중, 위원, 송원, 량림군의 노력으로 벌써 올해 농사에 필요한 유기질기름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둬.

3. 감자농사

□ 감자농사

- 감자종자 생산과 준비 (로동신문 11.26)
 - 지금은 모판만들기를 해야 할 시기임. 이른봄 밀식모판재배에 의한 감자종자 생산에서 모판준비는 더욱 중요함.
 - 이른봄 밀식모판재배에 의한 감자종자생산은 평지대의 감자종자생산에서 매우 우월한 방법임. 이 방법으로 감자종자를 생산하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음.
 - 우선 감자종자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감자종자생산량도 훨씬 늘릴수 있음. 그러므로 평지대의 모든 농장, 작업반에서는 이른봄 밀식모판재배에 의한 감자종자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당면하여 11월 말까지 모판만들기를 끝내야 함. 모판을 가을에 준비하지 못하면 다음해 이른 봄에 땅이 녹지 않아 종자심기를 적기에 보장할 수 없고 감자종자수확을 5월 하순 전에 끝낼 수 없음.
 - 이른봄 밀식모판재배할 감자종자는 다음해 1월 말에 꺼내어 싹틔울수 있도록 보관관리를 잘 해야 함.
- 감자캐기 한창 (로동신문 10.2)
 - 북부고산지대 농촌에서 지난 9월 중순에 시작된 감자캐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북도의 고산지대에서 9월말 현재 감자캐기실적이 45%를 넘어섬.
 - 자강도에서는 감자캐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섬. 룡림군과 화평군, 중강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서 이미 감자캐기가 끝나고 량림군에서는 60%를 넘어섬. 그리하여 9월말 현재 도의 감자캐기가 83% 수준에 달함.
 - 함경북도에서도 감자캐기가 일정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온성군, 회령시, 경

홍군, 부령군 등 시, 군에서는 감자캐기가 이미 끝났음. 9월말 현재 도의 감자 캐기 실적은 62%를 넘어섬.

- 함경남도 고산지대에서도 비가 자주 내리는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감자캐기 적기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대규모 감자산지인 량강도에서 감자캐기가 실시되고 있음.
- 삼자연군과 백암군에서는 포전별, 날짜별 감자캐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매일 실적을 올리고 있음. 혜산시에서는 감자캐기가 이미 끝났으며 김정숙군에서는 마감단계에 들어섬.
- 올해 큰물피해를 많이 받은 조건에서 감자산지에서는 감자종자고르기와 보관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감자산지건설 적극 추진 (로동신문 12.6)

- 백악군 덕포지구 감자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백암군 덕포지구에 1천 세대의 살림집과 10동의 농촌합숙, 60여 동의 돼지목장, 많은 농업생산건물이 건설됨. 또한 규격포전을 따라 수백정보의 방풍림이 조성됨.
- 도농촌경리위원회, 도혁명전적지관리국, 도검찰소일군과 건설자들은 기발한 착상과 앞선 공법을 받아들여 많은 자재와 노동력을 절약하면서도 많은 대상의 기초굴착과 벽체쌓기, 지붕씩우기를 짧은 기간에 끝냄.
- 량강도돌격대에서는 노동력과 기계화수단을 더욱 보강하고 토지정리와 토지개량전투를 동시에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함.
-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에서는 백암지구 감자연구에 필요한 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수십동의 온실을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함.

4. 축 산

□ 축산동향

- 집약화된 축산기지가 성과를 낸다 (로동신문 10.17)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수천㎡의 집약화된 축산기지를 건설하여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고 있음.

- 축산기지는 먹이, 물공급, 온도보장체계와 퇴수처리공정을 갖추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지만 생산능력은 2.5배 수준임.
 - 기업소에서는 부업기지에서 나오는 난알부산물을 분쇄한 다음 미생물로 처리하여 해마다 수천 톤의 배합먹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완비했으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종균배양기지와 고리약생산기지의 토대를 강화함.
 - 또한 알생산 능력을 종전보다 2배로 높이기 위한 능력확장공사를 진행하고 현대적인 조종관리체계를 받아들임. 고기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집짐승의 성장발육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만들어 쓰고 집짐승배설물은 부업농사에 이용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도 세움.
 - 현대적으로 꾸러진 집약화된 축산기지에는 지금 수천수만마리의 비육돼지와 오리도 있으며 칠면조, 닭, 토끼의 마리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방법을 찾아 (로동신문 10.25)
- 안악종축장에서 해마다 수천마리의 새끼돼지를 생산하고 있음.
 - 사업 초기에는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앞선 사양관리방법을 터득하고 먹이보장대책을 잘 세워 원가를 절약함. 이에 따라 종자돼지가 지난 시기보다 수개월 앞당겨 새끼생산을 할 수 있게 됨.
 - 신천군 청산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은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집짐승마리수가 많지 않았음. 작업반원들이 토끼우리를 새로 건설하고 빈땅을 찾아 영양가 높은 풀씨를 뿌려 먹이풀을 마련하는 동시에 앞선 사양관리방법과 수의방역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해마다 많은 새끼토끼를 생산하게 됨.
 - 배천군 창포협동농장의 자랑 중의 자랑은 정미소와 연결된 축산기지임. 정미소에서는 많은 돼지와 닭을 길러 농장원의 식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고 닭알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보내고 있음.
 - 이러한 정미소를 꾸리기 위해 농장원들은 당조직의 지도 하에 집짐승마리수를 늘리고 사양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오늘과 같은 결실을 이룸.
- 비알곡먹이로 더 많은 집짐승을 (로동신문 11.9)
- 희천시 송지협동농장 제3작업반은 농사는 물론 축산도 잘하고 있음. 주목되는 것은 집짐승기르기에 비알곡먹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임.

- 농장은 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대적 특성으로 인해 유기질거름원천을 많이 찾아낼 수 없었음. 이런 조건에서 유기질거름생산을 늘릴수 있는 방도를 축산에서 찾았음.
 - 작업반에서는 비육분조에 2층짜리 집짐승우리를 건설해놓고 풀, 낱알짚, 알곡 부산물 등을 최대한 효과있게 이용하기 위한 방도를 찾음.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 몇해전부터 토착미생물에 의한 먹이해결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함.
 - 이를 위해 울강냉이를 가을할 때부터 시작하여 각종 낱알짚과 알곡부산물, 풀을 비육분조퇴적장에 적당한 높이로 쌓아놓고 미생물처리를 함. 여기에 물을 뿌려주어 수분을 보장함. 이런 식으로 여러층 쌓아놓은 다음 며칠 지나서 퇴적장에 돼지를 놓아기르자 돼지먹이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됨.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6개월 간 수십마리의 돼지를 길러내면서 질좋은 거름을 생산함.
- 강원땅에 꾸러지게 될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 (로동신문 11.11)
- 강원도의 세포, 평강, 이천지구가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됨. 방대한 면적의 세포등판을 포함한 세포, 평강, 이천지구에 새로 조성되는 풀판은 수만 정보에 달함.
 -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풀판을 조성하여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이곳 지구 인민의 생활이 향상될 것임. 새로 형성되는 무연한 풀판에서는 소, 염소, 양, 토끼를 비롯한 집짐승, 오리, 계사니 등 가금류를 마음껏 방목할 수 있음.
 - 이와 동시에 무와 뚝감자, 사탕무우밭이 조성되고 수백㎡ 바람막이숲과 10개의 저류지가 생겨남. 수많은 집짐승우리와 20여 동의 축산물가공기지, 1,000여 세대의 살림집도 동시에 세워짐.
- 벌방축산의 자랑 (로동신문 12.4)
- 문덕군 립석협동농장은 벌방지대에 자리잡고 있지만 축산물 생산을 잘하여 소문을 내고 있음.
 - 올해 들어와 농장에서는 여기에서 수십 톤의 고기와 수만 알의 닭알을 생산하여 농장원들에게 공급함. 그리고 배설물을 이용하여 수천 톤의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대으로써 알곡생산을 늘리는데 적극 이바지함.

- 이는 일군, 농장원들이 축산부문 기술자와 긴밀한 연계 밑에 비알곡먹이를 많이 이용하기 위한 방도를 찾고 실천해 나간 성과임.
 - 지금 농장에서는 축산물 생산의 집약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앞선 사양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 자체의 축산기지를 튼튼히 꾸려놓은 보람 (로동신문 12.20)
- 전국 각지에 돼지공장, 오리공장, 닭공장을 비롯하여 고기와 알생산을 늘릴수 있는 현대적인 축산물생산기지가 많이 세워짐.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에서는 최근 축산기지를 잘 꾸려놓고 많은 돼지와 닭, 오리를 길러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있음. 연합기업소에서는 해마다 쌀겨와 분쇄한 강냉이짚, 콩짚, 각종 집짐승먹이풀을 첨가제로 처리하여 집짐승 먹이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음.
 - 강계연필공장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할 목표 아래 축산에 중점을 두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지금 150여 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으며 우량품종의 종축돼지로 해마다 100여 마리의 새끼돼지를 생산하고 있음.
 -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화풍탄광에서도 자체실정과 조건에 맞게 축산을 잘하고 있음. 이곳에서는 연간 수십 톤의 배합먹이를 생산할 수 있는 먹이가공기지를 건설하고 집짐승우리를 실리가 나게 꾸려놓음.
 - 개천기초식품공장에서는 겨울철에도 돼지를 지장없이 기를 수 있게 무동력 보일러가 설치된 돼지우리를 비롯한 축산기지를 세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많은 양의 돼지고기와 토끼고기, 오리고기를 생산하여 여러 계기 때마다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있음.
- 우리식 축산업발전의 설계도 (로동신문 12.25)
- 세포등판에서 풀먹는집짐승기르기를 실시하면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 세포등판은 해발고도가 평균 600m기 때문에 알곡보다는 오리새, 자주꽃자리풀과 같은 집짐승먹이풀, 딱감자, 무, 사탕무우 등이 잘 자랄 수 있음. 또한 강수량이 많고 연평균기온도 적당하며 통풍조건이 좋아 집짐승기르기에 적합함.
 - 몇 년 안에 드넓은 세포등판이 개간되고 축산기지가 꾸러지면 한해에 많은 고기와 젓을 비롯한 갖가지 축산물을 생산하게 됨. 뿐만 아니라 천수백 동의 살림집과 집짐승우리, 고기 및 젓가공기지가 세워지고 수백km의 방목도로가 건

설되게 됨.

- 하나의 종합체를 이룬 대규모축산기지가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가해야 할 것임.

5. 농업기반

토지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사업

- 홍건도간석지 건설을 다그친다 (로동신문 10.20)
 - 홍건도간석지 건설자들은 일터마다에서 제방성토공사를 빠르게 실시하고 있음.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에서는 안산지구와 석화지구에서 동시에 제방성토공사가 실시되는 조건에 맞게 현장지휘부를 전개하고 모든 단위에서 공사 속도를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다사기계화사업소의 노동자들은 제방성토공사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추진하면서 막돌과 흙을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수송전투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검열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간석지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 있으며 봉화화학공장을 비롯한 연관단위들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음.
- 강하천을 번듯하게 정리 (로동신문 12.1)
 - 은률군에서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둬.
 - 이번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큰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게 강하천정리사업을 잘하도록 사업을 추진함. 특히 많은 비가 오면 큰물의 영향을 받던 여러 정보의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2개의 강하천정리공사에 큰 힘을 쏟음.
 - 수km의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보강해야 하는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 균일군들이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줌. 농장에서는 후방사업에 힘을 넣어 농장원의 사기를 높임.
 - 그리하여 큰물피해막이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2개의 강하천정리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남. 군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다른 강하천에 대한 정리공사에도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끝냄.

- 국토관리사업에 힘을 집중 (로동신문 12.4)
 - 개성시에서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에 수행할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거둬.
 - 시에서는 단계별 목표를 바로 정하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과제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함.
 - 일군, 당원, 근로자, 가두인민반원들은 강바닥파기와 정리, 제방, 다리구조물보수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에서 성과를 거둬.
 - 해선천제방복구공사에 나선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기계수단을 총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수천㎡의 바닥파기를 진행하고 7,000㎡의 장석입히기를 완성함. 또한 근 20개소의 우수망, 오수망에 대한 보수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상수도공사도 빠른 시일에 끝냄.
- 수십km의 물길을 정리 (로동신문 1.6)
 - 문덕군에서는 올해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킬 목표밑에 이틀 동안에 수십km의 물길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둬.
 - 농장일군들은 물길정리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면서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시킴.
 - 농장원들은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언땅을 파내면서 물길정리를 실시하여 매일 계획보다 1.5배의 실적을 올림.
 - 룡오협동농장도 물길정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팔, 동사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에서도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둬.

6. 산림

산림

- 산간지대 산림조성에서 틀어쥔 고리 (로동신문 10.27)
 - 신평군은 사방이 산줄기로 둘러쌓여있는 산간지대임. 이런 지대적 특성에 맞게 신평군에서는 산을 통해 군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목재, 지방공업원료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산림조성 계획을 구상함.

- 이를 위해서는 군소재지와 멀리 떨어져있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에 용재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중요함. 이런 지대에 순환식채벌구역을 만들고 산림조성과 이용을 전망성 있게 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 군 소재지, 리 소재지, 마을의 가까운 산과 골짜기에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료를 얻어내기 위한 경제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함. 이를 위해서 주민지구와 지방공업 공장주변에 최근 3년 동안에만 수십만 그루의 잣나무, 수유나무, 밤나무 등을 심어 기름나무림, 산열매나무림을 조성하고 약초밭, 산나물밭도 만들.
 - 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대상의 특성에 맞게 보호림을 조성할 수 있는 설계를 완성하고 단계별 목표를 세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철길 주변에 더 많은 나무를 (로동신문 11.21)
- 개성시 일군, 근로자들이 철길 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이 우거지게 하고 있음.
 - 시에서는 철길주변을 수림화 할 목표를 세우고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지대적 특성과 토양조건에 맞게 창성이깔나무,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나무를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더 많이 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산림부문의 일군, 기술자들은 수종별 나무그루수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나무모생산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함. 그리하여 계획보다 훨씬 많은 수종의 나무를 키우게 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철길 주변에는 숲이 무성해지고 있음.
- 나무종자준비를 빈틈없이 (로동신문 11.22)
- 당의 국토건설구상에 따라 군일군들이 산림조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나무종자를 마련할 목표를 세움.
 - 허천군산림경영소에서는 나무종자채취와 관련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움. 이에 기초하여 나무종자 채취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또한 군에서는 나무종자를 마련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단위를 적극 내세우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성과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음. 그 결과 땀나무림 조성

에 필요한 아카시아나무와 일터와 마을을 아름답게 하는데 좋은 은행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종자가 충분히 마련됨.

□ 나무모 생산

- 나무모 야외재배장 건설 힘있게 추진 (로동신문 11.2)
 - 각지 산림경영소에서 나무모 생산의 공업화를 위한 야외재배장 건설이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야외재배장 건설이 70% 계선에 들어섬으로써 나무모 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는 전망이 마련됨.
 -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시, 군 산림경영소에서는 나무모 야외재배장 건설이 힘있게 진행되고 있음. 현지에 내려간 해당 부문 일군들은 야외재배장적지를 바로 정하고 해가림발 설치를 합리적으로 하며 나무모영양단지 생산을 제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음.
 - 평원군, 신양군산림경영소에서도 나무모생산을 공업화하여 온 나라의 산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우거지게할 높은 결의로 분발해 해가림발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치하는 데 힘을 넣고 있음.

□ 통나무 생산

- 겨울철 생산준비를 빈틈없이 (로동신문 10.26)
 - 임업성에서는 겨울철 통나무생산준비상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각지 통나무 생산단위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미진한 과제를 빠른 시일안에 끝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음.
 - 특히 도림업관리국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사업소에서는 지난해 겨울철 통나무 생산경험에 비추어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생산준비를 실속있게 갖추도록 하는 한편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 있음.
 - 강계갱목생산사업소, 위원갱목생산사업소, 량림린산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국 아래 사업소의 일군들의 노력으로 수십km에 달하는 자동차길과 소밭구길이 보수 및 건설되었으며 계획된 삭도보수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음.
 - 특히 관리국에서는 모든 임산, 갱목생산사업소에서 준비건설과 함께 겨울철 통나무생산 기간에 연유를 적게 쓰면서 사이나르기 실적을 높이기 위한 준비

사업을 착실히 하고 있음.

○ 통나무 생산에서 연일 혁신 (로동신문 11.6)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겨울철통나무생산이 시작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7배 이상의 산지통나무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둠.
- 임업성에서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각지 립산, 갯목생산사업소에서는 현행 생산을 빠르게 하면서 순환구역, 채벌구역에 따르는 기술준비와 생산준비를 실속있게 하여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
- 풍서임산사업소와 연암, 백암갯목생산사업소에서는 이미 닦아놓은 길을 잘 이용하여 베어놓은 통나무를 지체없이 운반함으로써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장진임산사업소와 신흥, 검덕갯목생산사업소에서는 나무베기를 앞세우면서 료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여 맡겨진 계획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임업관리국과 강원도임업관리국 아래 여러 임산, 갯목생산사업소에서 도 설비관리를 추지하고 앞선 나무베기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증산투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생산에서 연일 혁신 (로동신문 12.9)

- 자강도임업관리국의 일군, 노동계급이 탄광, 광산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중요전선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기 위해 겨울철통나무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당조직의 지도하에 관리국의 일군들은 겨울철 통나무생산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여 산지 통나무 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낼 목표를 세움. 관리국에서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분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겨울철 통나무생산사업에서는 강계, 위원, 희천갯목생산사업소, 량림, 룡림림산사업소가 앞서나가고 있음. 특히 강계갯목생산사업소가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 있음.

7. 기타 작물

□ 과수

-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생산의 공업화 실현 (로동신문 11.11)
 - 지난 9일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된 수십만 그루의 키낮은사과 나무접그루를 북청군의 과수농장에 보냄.
 -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생산의 공업화를 위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에 식물조직배양기지와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 생산을 위한 순화온실을 갖춘 현대적인 온실을 세움. 지난 2월에는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의 공업적인 생산을 위하여 넓은 면적의 과수묘목시험장도 세움.
 - 이번에 북청군으로 나간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는 생물공학분원 식물조직배양연구소에서 조직배양한 모를 온실에서 순화시켜 지난 여름에 과수묘목시험장에 내다심은 것으로서 키가 50cm~1m 정도 되게 자란 접그루임.
 - 키낮은사과나무 접그루생산의 공업화가 실현됨으로써 첨단생물공학기술에 기초하여 나라의 사과재배부문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확고한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됨.
- 과일가공기지 새로 건설 (로동신문 11.21)
 - 룡전과수농장에 과일가공기지가 새로 건설됨. 연간 많은 과일을 가공할 수 있는 이 가공기지에서는 과일즙과 과일술을 비롯한 과일가공품이 생산되게 됨.
 - 과일가공기지 건설을 위해 근로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여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공기지를 건설함.
 - 지난 11월 초 첫 과일즙이 생산됨. 가공지에서 생산된 과일즙은 맛이 독특하고 향기로워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냄.
 - 농장의 일군, 기술자, 근로자들은 이룩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과일가공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가짓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굴지의 과일생산기지로 (로동신문 12.11)
 - 북청군이 굴지의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고 있음.
 - 군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자체의 힘으로 수백정보의 키낮은사과 나무밭을 새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배, 복숭아나무밭을 포함하여 천수백정

보의 과수밭을 조성함.

- 지난 11월 중순부터 군에서는 다음해 봄까지 또다시 수백정보의 과수밭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함.
 - 군에서는 과수밭건설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동시에 과일나무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묘목농장을 내오고 거기서 과수밭 건설과 과일나무그루바꿈에 필요한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과일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과일가공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며 과일보관고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2,000여 톤의 물거름을 청춘과원에 (로동신문 1.9)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모든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5일 동안에 2,000여 톤의 물거름을 과수원에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함.
 - 신년사의 과업에 따라 농장에서는 열흘동안에 수천 톤의 물거름을 실어낼 목표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함.
 - 일군들은 삼석지구에 해마다 1만 수천톤의 물거름과 수천 톤의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하여 사과생산을 늘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갖춰진 조건에 맞게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직사업을 추진함.
 - 농장에서는 작업반별 유기질비료 생산계획을 정확하게 주는 것과 함께 대동강 댐지공장의 물거름을 실어내기 위한 일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움.
 - 물거름 실어내기에서는 제7작업반의 근로자들이 앞장서고 있음. 제11, 12작업반의 근로자들도 트랙터에 대한 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하여 그날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 남새

-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 본격적으로 진행 (로동신문 11.9)
- 자강도에서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강계시 공인지구에 한 해에 수백 톤의 남새를 생산하는 태양열 남새온실을 새로 건설하고 홍주지구의 태양열 남새온실을 개건보수하며 도급기관과 공장, 기업소에서 경제적 효과가 높은 태양열 남새온실을 빠른 기간에 건설할 수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

- 강계시 공인지구의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은 적극 추진되고 있음. 노동력을 통해 짧은 기간에 2만 여 m²의 토량을 처리하고 10여개 호동의 태양열 남새온실 기초공사를 실시함.
 - 도당책임일군들은 도 일군들이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장에 자주 나가 건설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멘트, 강재를 비롯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고 있음.
 - 지휘부에서는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좋은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에 관심을 돌리면서 온실건설을 앞당겨 끝내고 씨붙임을 할 수 있게 갖가지 남새종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남새온실 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로동신문 11.22)
- 평안북도에서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 당의 뜻에 따라 신의주시의 선상지구에 태양열남새온실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음.
 - 현장지휘부에서는 시멘트와 모래를 비롯한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기관, 기업소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온실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고 있음.
 - 황해북도에서는 남새온실 건설을 완공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도에서는 설계를 하고 온실적지를 바로 정한데 맞게 건설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자재보장과 노동력조직사업을 하고 있음.

□ 유채

- 많은 면적에 유채를 심었다 (로동신문 11.12)
- 강원도에서 유채를 많이 심어 먹는기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 하에 도에서는 유채농사를 잘하여 먹는기름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는 안변군 비산협동농장과 사평협동농장의 경험을 모든 단위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올해 가을철에도 도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많은 면적에 유채를 제철에 심음.
 - 안변군 사평협동농장에서는 최근년간 유채를 많이 심어 해마다 유채씨로 생산

한 먹는기름을 농장세대에 공급해주고 있음. 농장에서는 유채씨뿌리기 날짜를 바로 정하고 씨숙음을 비롯한 유채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문천시 룡정협동농장과 통천군 금란, 구읍협동농장, 법동군 로탄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의 여러 협동농장과 기관, 기업소에서도 유채농사를 잘하여 먹는 기름 문제를 풀 목표 밑에 많은 면적에 가을유채를 질적으로 심었음.

8. 기타 보도 동향

비료, 기름

- 농촌에 많은 유기질비료와 기름을 집중수송 (로동신문 1.7)
 - 평양시에서 농사준비에 한창인 주변농장에 많은 유기질비료와 질좋은 기름을 보내줌.
 - 6일 김일성광장에서는 시안의 주변농장에 많은 유기질비료를 보내주기 위한 출발모임이 진행됨.
 - 모임에 이어 수천 톤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가 김일성광장을 출발함.
 - 이에 고무된 농업근로자들은 더 많은 알곡과 남새를 생산하여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열의를 보임.

현지도

- 강원도 세포, 평강, 이천지구 료해 (로동신문 11.10)
 - 최영림내각총리는 강원도 세포, 평강, 이천지구의 광활한 풀판을 개간하여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준비상황을 현지에서 파악함.
 - 세포, 평강, 이천지구에 수만 정보에 달하는 대규모 풀판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꾸리면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됨.
 - 총리는 먼저 세포등판의 일부 지역을 개간한 인민군대의 한 부업농장포전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생산한 남새작황을 파악함. 이어 세포등판의 성산지구에서 세포군의 풀판개간면적과 토질상태 등을 알아봄.
 - 현지에서 당과 국가, 군대책임일군 간 협의회가 진행됨. 협의회에서는 세포,

평양, 이천지구의 지역별 풀관개간 및 축산기지건설 목표, 개간과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재, 설비보장 문제 등이 토의됨.

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 北-시리아, 경제무역·과학협조 의정서 체결

- 북한과 시리아가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경제공동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통신은 “회의에서는 조선수리아(북한-시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7차 회의 의정서의 이행정형(이행상태)이 총화되고(평가되고)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조선수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8차회의 의정서가 조인됐다”고 밝힘.
- 회의에는 북한 측에서 리용남 무역상이, 시리아 측에서 루바나 무샤웨흐 문화부 장관과 하이쌌 사아드 북한주재 임시대리대사가 각각 참석함. 통신은 그러나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연합뉴스, "北-시리아, 경제무역·과학협조 의정서 체결", 2012.11.5

□ 獨단체, 北에 3년간 유기농법 전수

- 독일의 민간단체인 유기농연구소(FiBL)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북한에 친환경 농법을 전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연구소의 비아테 후버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이 지원한 50만 유로를 이용해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업 방식을 북한에 전수하고 있다”며 “북한의 농업 지도자 약 20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힘.
- 연구소는 북한의 농업연구소와 함께 약 30ha 규모의 농장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곡물을 재배하고 있고, 독일에서 파견한 연구원 5명이 북한 농업과학원 산하 유기조사연구원과 공동으로 북한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찾고 품종을 개량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후버 대변인은 “유기농법 전수와는 별개로 EU 원조협력청에 축산업 분야의 기술지원을 위한 대북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이 결정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獨단체, 北에 3년간 유기농법 전수", 2012.11.7

□ FAO 관계자 "北 농업개혁 시험 중"

- 지난 9월 북한에서 올해 작황을 조사한 FAO의 키산 군장 박사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일부 지역에서 농업 개혁을 시험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북한 관계자들은) 성과가 좋으면 개혁 추진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RFA가 14일 보도함.
- 그는 방북 기간 북한 고위 당국자에게 농업 개혁에 관한 질문을 했다가 “그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복수의 농업 관계자들은 개혁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설명함.
- 군장 박사는 또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세계식량계획(WFP)과 FAO가 최근 북한의 올해 곡물생산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올해도 넓은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었지만 수확량이 감소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면서 “10만 ha에서 약 20%정도 수확량이 줄었지만 심각한 피해는 아니었다”고 말함.

연합뉴스, "FAO 관계자 "北 농업개혁 시험 중"", 2012.11.14

□ WFP, 北서 식품공장 14개 운영중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총 14개의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함.
- 나나 스카우 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지난 9월 평양에서 옥수수 와 밀가루를 이용해 영양강화 비스킷을 만드는 식품가공공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며 “북한에 있는 14개 공장에서 올해 3분기 생산한 식품의 양은 1만 200 톤으로 이전보다 10% 늘었다”고 밝힘.
- 영양강화 비스킷은 옥수수와 밀가루를 주재료로 가로, 세로 5cm의 정사각형 모양의 과자로 ‘WFP’라는 글자가 새겨져 학교와 탁아소 등 아동시설에 공급되며

어린이 1명당 하루 2개씩을 지원함.

- WFP는 평양에 있는 4개 공장을 비롯해 신의주, 해주, 원산, 함흥, 혜산, 청진 등 7개 도시에서 14개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된 식품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분배하고 있음.
- 스카우 대변인은 모니터링(분배 감시) 문제와 관련, “지난달 북한의 48개 지역에서 276회의 분배 감시 활동을 벌였다”며 “북한 당국과 유엔의 협약에 따라 하루 평균 10회의 식량분배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WFP, 北서 식품공장 14개 운영중", 2012.11.15

北 인구 2,460만 명 ... "1년 사이에 10만 명 증가"

- 북한의 인구가 지난 1년 사이에 10만 명 증가해 세계 평균 인구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인구기금(UNFPA)은 14일 발표한 '2012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인구가 2,4백0만 명으로 2011년 2,450만명 보다 10만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힘.
- 이러한 인구 증가율은 0.4%로, 세계 평균 1.1%,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15년까지 북한의 인구가 연 평균 0.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보고서는 2015년까지 북한 여성 1명이 2명 정도의 아이를 출산할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북한의 인구 구조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분석함.
노컷뉴스, "北 인구 2460만 명 ... "1년 사이에 10만 명 증가"", 2012.11.15

中기업, 北나선특구 투자 가속화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나선 특구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20일 지린(吉林)성 경제합작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나선 특구에 투자를 결정한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8~10개사에 이른다고 전함.

- 신문은 지난 8월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기간에 북·중이 6개 기업의 투자사업과 4개 정부합작사업에 정식 합의했으며 중국교통그룹, 중국철로건설그룹, 자오상(招商)그룹, 야타이(亞泰)그룹 등 대형 기업들이 곧 나선 특구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앞서 훈춘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북한 투자 연구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에 대한 법률적 보장과 분쟁 접수·처리 기구가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음. 중국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북·중이 공동 설립한 나선 특구 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음.
- 신문은 중국 측이 지난 9월 나선 특구 관리위원회의 북측 관계자들을 초청해 지린성 창춘(長春)시의 법률사무소를 견학하도록 하고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중기업, 北나선특구 투자 가속화", 2012.11.20

□ 北, 평양시 하천정비·공원 리모델링 완료

- 북한당국이 지난달 초부터 추진해온 평양시내 하천정비 사업과 공원리모델링 사업이 대부분 완료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평양시내 합장강·보통강 정리사업, 공원리모델링 사업이 40여 일 만에 모두 마무리됨.
- 합장강 정리사업에서는 28만㎡의 진흙을 파내고 1만 8천㎡의 옹벽을 보수함. 보통강 정리사업에서는 80만㎡의 진흙을 파내고 3만 2천㎡의 옹벽을 조성하는 한편 부지 9만㎡에 대한 정리·녹화사업도 진행함.
- 또 상흥아동공원, 대동문공원, 보통강공원, 청류공원 등 평양시내 18개 공원에는 녹지를 조성하고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 시설과 운동기구를 설치함.
연합뉴스, "北, 평양시 하천정비·공원 리모델링 완료", 2012.11.20

□ 中제품 北암시장 석권...위안화 사용 확산

- 중국산 제품이 북한 내 암시장을 장악했고 암시장에서는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가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23일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북한경제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말 화폐개혁에 실패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물가와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코트라는 “중국 제품이 암시장을 석권했고 북한 원화보다 위안화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며 “지난 1월 문을 연 평양시내 최대 규모의 광복지구상업센터에서 파는 식료품, 의류, 전기제품도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전함.
- 평양시내 일반 슈퍼마켓에서 중국산 포테이토칩은 3천원, 컵라면은 6,500원인데 반해 공무원 월급은 3천~1만원 수준에 불과함. 중국 세관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1~8월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6억 5,100만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함.

연합뉴스, "中제품 北암시장 석권...위안화 사용 확산", 2012.11.23

□ 北 영아·산모 사망률 1990년대 초 보다 높아져

- 북한의 영아사망률(출생 후 1년 이내 사망)과 임신·분만 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하는 모성사망률이 1990년대 초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북한어린이를 지원하는 (새)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각종 국제기구 자료 등을 분석해 26일 내놓은 ‘2012년 북한 보건의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993년 1천명 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남한은 9.9명에서 3.5명으로 낮아짐. 모성사망률(10만명 분당 기준) 역시 1993년 54명에서 2008년 77명으로 높아짐.
- 지원본부는 “가정에서 출산할 때 사망 위험이 컸다”면서 “또 (산모들의) 병원 이용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피임기구 등이 부족했다”고 전함.
- 반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1960년 37명에서 1990년 14명, 2000년 48.8명, 2008년 26.7명 등의 추세를 보임. 어린이 영양장애 비율 역시 급성영양장애의 경우 1998년 15.6%에서 2009년 5.2%로, 만성영양장애와 저체중 비

율은 같은 기간 각각 62.3%에서 32.4%, 60.6%에서 18.8%로 하락함.

연합뉴스, "北 영아·산모 사망률 1990년대 초 보다 높아져", 2012.11.26

□ 北·中 황금평 단계적 개발...1.6km² 우선 추진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관리를 추진 중인 북한 황금평 경제특구 가운데 일부 부지를 우선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이 2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중은 전체 면적이 14.4km²에 이르는 황금평 특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이 중 1.6km² 규모의 '초기 시작구역'을 먼저 건설할 방침임. 이곳에는 도로, 전력, 상·하수도, 통신, 가스, 난방 등 기반시설 이외에 황금평 특구 관리위원회 청사, 세관, 교역센터, 표준 공장건물, 보세창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관리위 청사는 지난 9월 15일 현지에서 착공식을 했음.
- 관리위 책임자인 주임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공산당위원회 루빙위(盧秉宇) 상무위원이 맡았으며 4명의 부주임은 북·중이 각각 2명씩 파견하고 관리위 산하에는 건설, 투자유치, 재정, 세무 등을 담당하는 6개 부서가 설치됨.
- 중국경제주간은 현재까지 드러난 황금평 특구의 합작모델과 관련 법률, 정책 등이 두만강 유역 경제특구인 북한 나선 특구와 거의 같으며 북·중 간 경제합작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지만 합작 기간, 관리위의 직능 규정과 인원 구성, 교역·결산 화폐단위 등 정리해야 할 세부 과제가 많다고 전함.

연합뉴스, "北·中 황금평 단계적 개발...1.6km² 우선 추진", 2012.11.28

□ 北, 자연재해 위험지수 세계 7위

- 북한이 자연재해 때문에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독일 비정부 환경단체인 '저먼워치'(German Watch) 보고서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저먼워치는 1992~2011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그 피해를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13년 국제 기후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후위험지수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악화해 전체 7위로 평가됐다고 밝힘.

- 이 단체의 라리사 뉴바우어 대변인은 RFA 측에 지난 20년간 북한에서 37건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며 북한은 해마다 평균 2건의 자연재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봤다고 전함.
- 보고서는 또 북한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본다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재난대처 능력이 취약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고 밝힘.
연합뉴스, "北, 자연재해 위험지수 세계 7위", 2012.11.29

□ 北, "북-중 세관 5일만에 다시 통관 허용"

-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는 11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애도기간(17~18일)을 주민들에게 공고한 5일부터 북중 국경 세관에서 중국 공산품 반입을 중단시켰다"고 전함.
- 그러나, "통관 중단으로 물가와 환율이 오르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10일부터 중국산 물품에 대한 검열을 재개해 하루 동안 쌀 50여 톤과 사과, 바나나 등 과일과 겨울 동복이 대량으로 들어왔다"고 말함.
- 함경북도 회령시 소식통도 "회령세관에서도 10일부터 통관을 다시 시작해 쌀이 40여 톤과 밀가루 10여 톤, 밥가마(밥솥) 등 잡화를 들여왔다"고 전함.
- 북한 당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애도 기간을 공고하기 전인 11월부터 중국 친척 방문을 금지하고 12월 들어서는 중국과의 무역도 전격 차단함. 북한 당국이 이처럼 중단했던 통관을 서둘러 푼 것은 중국산 물품 반입 중단으로 물가와 환율이 올라가자 민심 이반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임.
노컷뉴스, "北, "북-중 세관 5일만에 다시 통관 허용"", 2012.12.12

□ 北, "외화단속에 화폐교환설 나돌아"

- 북한에서는 최근 '새경제관리체계' 시행의 한 단계로 또다시 화폐교환설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 소식통은 11일 "지난달에 있었던 외화검열로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외화검열이 시작되면서 곧 화폐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크게 번

지게 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지난 11월 중순, 불법외화사용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자 모든 장마당에서 중국인민폐 1위안 대 북한 돈 1천3백 원이던 환율이 며칠 사이에 인민폐 1위안 대 북한 돈 1천4백 원 선을 넘어섰다”고 밝힘.
- 양강도의 소식통도 “일반 주민들은 물론, 간부들조차도 지금의 화폐를 가지고는 새경제관리체계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내놓고 하는 분위기”라고 말함.
노컷뉴스, "北, "외화단속에 화폐교환설 나돌아", 2012.12.12

□ 北잡지, 경제특구 5가지 관리형태 언급

- 북한의 경제잡지 ‘경제연구’ 최신호(2012년 4호·10월 30일 발행)는 ‘경제특구와 그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특구의 행정관리체제가 국제적인 경제 운영 환경과 경제특구 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마련한다며 “경제특구 관리형태는 보통 5가지 관리형태, 즉 관리위원회 주도형, 공사운영형, 관리위원회 협조형, 합작형, 위탁관리형으로 분류된다”고 밝힘.
- 이어 “경제특구 관리형태에서 주도적인 형태인 관리위원회 주도형은 상급정부에 의해 설립된 정부의 부속기구인 경제특구관리기구가 경제특구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형태”라며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경제특구 개발의 초기에 정부 주도형을 취해왔다고 설명함.
- 특히 ‘경제연구’가 공사운영형, 관리위원회 협조형, 합작형, 위탁관리형 등을 언급함에 따라 그동안 관리위원회 주도형만 고수해온 북한이 경제특구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연합뉴스, "北잡지, 경제특구 5가지 관리형태 언급", 2012.12.16

□ 中기업들, 北광물자원 투자 가속화

-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광물자원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북한 광산을 선점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 20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북·중 접경인 중국 지린성의 훈춘용이(琿春永益)수출입무역회사는 지난 13일 훈춘시에서 북한 평양모란봉무역총회사와 금광 합영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 지난 14일에는 중국 후난웨이진(湖南緯金)투자그룹이 북한과 합작으로 금광을 개발한다고 발표함. 이 회사는 금광 개발권을 얻기 위해 북한 내 5성급 호텔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정 매장량이 50톤 이상인 평안북도 운산군 금광에 2천만달러(약 215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북한에 투자한 중국의 200여개 기업 가운데 70%가량이 광물자원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추산됨. 일부 중국 기업은 북한측에 투자의 대가로 광산의 장기 또는 영구 개발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중기업들, 北광물자원 투자 가속화", 2012.12.20

□ 北 장마당 '중국 위안화가 장악'

- 북한 장마당에서 대부분의 물건을 중국 인민폐(위안화)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24일 “북한 장마당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위안화가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위안화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들은 “종전에는 1위안(元)이나 10첸(錢)과 같이 액면이 작은 중국화폐들이 부족해 값을 매기기 애매한 물건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액면가가 작은 물건들도 모두 위안화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함.
- 소식통은 “빠른 시일 내에 위안화가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물물 거래를 하던 밀수꾼들이 대부분 위안화로 물건 값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또 “북한의 환전꾼들이 환차익을 노려서 달러를 중국에 넘기고 대신 중국 위안화를 받아오는 현상이 늘면서 위안화 확산을 도왔다”고 말함.
- 소식통들은 “쌀만 아니고 장마당에서 모든 물건이 중국 위안화로만 유통돼 북한 돈의 가치가 오르거나 내려도 장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노컷뉴스, "北 장마당 '중국 위안화가 장악'", 2012.12.25

□ 북한 對중국 무역의존도 70%로 확대

- 통계청이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 27일 발표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2011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남한 돈으로 133만원, 남한은 2,492만원이었음. 남한이 북한의 18.7배임.

-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23.1%)과 광업(14.6%)의 비중이 남한에 비해 상당히 높았음. 제조업 비중은 21.9%, 서비스업은 29.4%로 남한보다 각각 9.3%포인트, 28.7%포인트나 낮았음.
-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북한의 대(對)중 의존도가 심해짐. 지난해 기준으로 북-중 교역액은 56억 2,900만 달러로 대외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1%에 달했음. 전년도 56.9%에서 13.2%포인트나 확대됨. 대중 교역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수집한 2000년 이후 처음임.

연합뉴스, "북한 對중국 무역의존도 70%로 확대", 2012.12.27

□ 北, 청진에 자유무역구 설치 희망

- 북한이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항만이 있는 청진시에 자유무역구를 설치할 의향을 내비쳤다고 중국 언론이 27일 전함.
- 중국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는 익명의 북한 인사를 인용해 “북한은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을 개방하고 앞으로 청진시를 자유무역구에 넣을 의향이 있는데 이는 중국 선전, 둥완과 같은 도시를 모방해 청진항 개발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북한 동해안의 청진항이 원래 산적화물 부두로, 컨테이너 하역·운송이 불가능하지만 서해안의 남포항과 함께 북한 최대 항만이며 식량, 강철 등을 주로 운송한다고 소개함.
- 지난 9월에는 투먼시 소재 민영기업인 연변하이화그룹(延邊海華集團)이 평양에서 북한항만총회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청진항 해운항만합작경영회사를 공동 설립함.
- 북·중은 양국 기업들을 내세워 선봉, 나진, 청진, 김책, 단천, 흥남, 원산으로 이어지는 북한 북동부지역 항만 가운데 나진항, 청진항을 포함해 4~5곳에 대한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北, 청진에 자유무역구 설치 희망", 2012.12.27

□ 올해 북-중 무역 사상 최대 전망

-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중 교역액은 49억 5,938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46억 6,539만 달러)보다 6.3% 늘었음. 올해 월평균 교역액이 4억~5억 달러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인 작년 수준(56억 2천만 달러)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수출입액으로 보면 중국은 북한에 28억 5,972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20억 9,966만 달러 상당을 수입해 7억 6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봤음. 이는 작년(5억 7천만 달러)보다 33%나 증가한 것임.
- 중국의 수출품은 원유·석유제품이 4억 8,296만 달러(16.8%)로 가장 비중이 컸고 20톤 이상 화물차(8,754만 달러), 밀가루(5,262만 달러),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4,389만 달러) 등으로 다양했음.
- 반면 수입품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연탄(10억 3,746만 달러), 철광석(2억 556만 달러), 수산물(7,598만 달러), 비합금선철(6,354만 달러) 등 1차 상품이 주류를 이뤘음.

연합뉴스, "올해 북-중 무역 사상 최대 전망", 2012.12.30

□ 北, "새경제관리개선 조치 실시했나?"

- 북한이 12월 1일부터 새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기업소들이 책임 경영제를 도입했다는 주장이 나옴.
- 대북경협시민단체인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은 31일 북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제개선은 이미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남북포럼은 "북한이 기업 경영개선 조치로 지배인 책임 경영제를 도입해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생산을 분배하고 기업 간 계약을 통해 물자 조달과 생산물 판매 등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함.
- 농업협동농장의 자율성도 확대해 농지의 분배 분조 규모를 축소하고 토지이용료, 농자재비, 물세, 비료대금, 전기료, 트랙터 사용 등에 대한 이용료를 국가에 내고 나머지 생산량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하도록 했다고 주장함.

- 한편, 통일뉴스도 지난 28일 대북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농업에 이어 12월 1일 부터 전 기업소와 전 지역에 ‘사회주의적’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전면 실시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종합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노컷뉴스, "北, "새경제관리개선 조치 실시했나?", 2012.12.31

□ 중국 단둥-평양 직통열차 증편…매일 운행

-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평양을 연결하는 직통열차가 증편돼 올해부터 매일 운행한다고 현지 매체인 압록강만보가 1일 보도함.
- 신문은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둥-평양을 오가는 승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주 4회 운행했던 직통열차를 이날부터 매일 운행하기로 했다고 전함.
- 북한과 국경을 맞댄 랴오닝성은 지난 1988년 북한 관광을 시작해 단둥에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 평양, 금강산 등지로 향하는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음.

연합뉴스, "중국 단둥-평양 직통열차 증편…매일 운행", 2013.1.1

□ 北 "군부 산하 무역회사에 외화벌이 다시 허용"

- 북한이 김정은 체제 시작이후 내각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일부 축소했던 군부 산하 무역회사의 대외무역을 다시 허용한 것으로 알려짐.
-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1일 북한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군부 산하 무역회사들이 산간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와 약재를 대량 구입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뿌리고 있으며, 내년 생산될 무역품목(목재, 약초 등)에 한해 선불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지난 11월 이후 강성무역회사가 공식무역허가(와크-무역품목 허가증)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보위사령부와 2경제 등 각종 군부 산하 무역회사들이 잇달아 무역허가를 제출했다”고 주장함.
- 현지 주민들은 “겨울을 맞아 농한기로 경제적 수입도 없었는데 다행이라는 반

을 보이고 있으며, 산악지역 주민들은 목재채벌에 가족과 농장 단위로 나서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노컷뉴스, "北 "군부 산하 무역회사에 외화벌이 다시 허용", 2013.1.2

□ 북한, 광산개발권 대가로 기반시설 건설 추진

- 북한이 최근 도로, 호텔 등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해주는 중국 기업에 광산개발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7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북한 곳곳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대가로 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게 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중국 후난웨이진(湖南緯金)투자그룹은 북한 내 호텔과 고속도로 건설 등을 지원하고 북한 최대 금광인 평안북도 운산금광 개발에 참여하기로 함. 이 그룹은 금광 개발권을 얻기 위해 올해 완공 예정인 북한 내 30층 규모의 5성급 호텔 건설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짐.
- 지린성의 훈춘용이(琿春永益)수출입무역회사도 지난해 말 북한 평양모란봉무역총회사와 자강도 우산시의 금광을 합영 개발하는 협약을 맺음. 평양모란봉총회사는 주로 평양시의 기반시설 건설을 담당하고 금, 은, 철, 석탄 등의 수출입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중국 측 파트너인 훈춘용이수출입무역회사도 주력 업종이 철광, 탄광, 부동산 개발과 고급 호텔 운영임.

연합뉴스, "북한, 광산개발권 대가로 기반시설 건설 추진", 2013.1.7

□ 北-中 잇는 신압록강대교 내년초 완공 예정

-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내년 초 완공될 것으로 보임. 중국 랴오닝성 교통부는 신압록강대교 주요 공사가 올해 끝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힘.
- 지난 2010년 착공된 신압록강대교는 북한과 중국의 최대 교역 거점인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다리로 왕복 4차로에 3.026km에 달함. 다리 건설에 들어간 비용 22억 2천만 위안(약 3,786억 원)은 모두 중국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진은 “대교가 건설되면 양국 간 소통은 물론 경제협

력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함.

연합뉴스, "北-中 잇는 신압록강대교 내년초 완공 예정", 2013.1.7

□ 中, 北에 전문가 70명 파견 경제특구 '컨설팅'

- 중국 상무부가 북한에 전문 인력 70여 명을 보내 나진, 황금평·위화도 공동 경제특구에 대한 ‘합작 컨설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 소식통은 “크게는 경제특구의 운영 형태에서부터 특구 관련 각종 법 제도, 외국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30여 년 개혁개방의 중국 비법을 전수 중”이라고 덧붙임.
- 지린성 상무청은 중앙 부처인 상무부와 직계 상하 관계임. 북한에 파견된 중국 공무원들은 나진, 황금평·위화도 부근의 신의주, 평양 등지를 오가며 구체적인 경제특구 운용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中, 北에 전문가 70명 파견 경제특구 '컨설팅'", 2013.1.9

□ 네덜란드, "北 감자 품종 개발 연구 계속"

-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이 새해부터 북한의 감자 생산성을 높이는 2차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힘.
- 네덜란드의 바게닝겐 대학의 북한 사업 책임자인 마텐 용스마 박사는 9일 “북한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진행할 새로운 감자 연구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함.
- 용스마 박사는 “유럽연합과 네덜란드 정부의 공동 지원금으로 북한의 풍토에 맞고 병충해에 강한 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의 1차 지원에 이은 2차 ‘감자질병 통합관리’지원 사업”이라고 전함.
- 용스마 박사는 “지난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 유럽원조협력청과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로부터 지원받은 45만 유로(미화 약 59만 달러)로 평양 농업과 학성과의 공동 연구를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임.

노컷뉴스, "네덜란드, "北 감자 품종 개발 연구 계속", 2013.1.10

□ 北, 새해부터 농업개혁 시작

- 북한이 올해부터 집단 농장을 가족단위의 작은 분조단위로 나눠 농사짓는 농업 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 지방의 한 주민은 14일 “새해들어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 농업기관들이 농민들에게 분조관리제 운영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이 주민은 “북한 당국이 지난 1년 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가족단위의 ‘분조관리제’가 효과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말함. 또, “분조관리제가 시행되는 농장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의 배급을 생산하던 농장들로 한 개 시군에서 약 70%의 농장들이 개혁 대상이 됐다”고 설명함.
- 그러나, “중앙당 간부들의 식량배급을 생산하는 8호 농장이나, 호위국 산하 국영농장들, 인민무력부 집단농장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종자를 전문 생산하는 각 시군의 종자농장들도 기존대로 운영된다”고 말함.

연합뉴스, "北, 새해부터 농업개혁 시작", 2013.1.15

□ 北 해주 고아원 어린이 92% 만성영양실조

- 덴마크의 구호단체 ‘미션 이스트’가 지난해 11월 황해남도 해주의 고아원에서 영양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 92%는 만성적인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또 이 고아원의 5만 이하 어린이 10%가 급성 영양실조에 걸렸고 36%는 급성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파악됨.
- ‘미션 이스트’의 킴 하르츠너 사무국장은 이런 통계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잘 보여준다고 하며 “일부 어린이들은 당장 식량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정도”라고 말함.
- 그러나 이 단체가 지난해 6~7월 해주 고아원의 영양실태를 조사했을 때 5세 이하 어린이의 70% 이상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은 나아진 것임.

연합뉴스, "北 해주 고아원 어린이 92% 만성영양실조", 2013.1.16

□ 北경제 바닥 찍고 상승세 타나…경제지표 호전

- 1990년대 중반 이후 내리막을 걸던 북한 경제가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반전하는 양상이어서 주목됨.
- 통계청이 작년 말 발표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북한은 2011년 0.8%의 경제성장률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보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의 성장과 농업생산량의 증대가 플러스 성장의 동력이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특히 이러한 성장 반전의 배후에는 중국과의 무역규모 증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곡물생산도 늘어나면서 만성적인 식량난에 숨통을 틔우는 모양새임. 유엔 산하 기구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2012~2013 양곡연도’ 기준으로 쌀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각각 11%와 10% 늘어날 것으로 추산함.
- 한 북한경제 전문가는 “북한에서 생산수준이 나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인플레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결국 화폐유통을 통한 분배의 문제가 북한이 당면한 문제이고 이 문제가 개선되어야 주민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연합뉴스, "北경제 바닥 찍고 상승세 타나…경제지표 호전", 2013.1.17

□ 작년 중국 찾은 北주민 18만명… ‘사업목적’ 42% 증가

-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총 18만 600명으로 2011년보다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국가여유국의 ‘2012년 1~12월 외국인 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방문 북한인 중 취업목적 근로자가 7만 9,600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목적 방문자가 5만 2,200명(31%)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
 - 취업목적 근로자는 전년보다 4,300명(6%) 증가했고 사업목적 방문자는 1만 6,200명(42%) 늘어난 것임.

- RFA는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 4명 중 3명 정도가 취업·비즈니스를 위한 방문이었다”며 “이는 양국 간 경제분야 교류와 협력이 크게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연합뉴스, "작년 중국 찾은 北주민 18만명...‘사업목적’42% 증가", 2013.1.18

□ 스위스 대북사업가 "北, 무역·상업에 우선순위"

- 북한과 스위스 기업이 합작한 ‘펑스제약합영회사’의 펠릭스 앵트 회장은 “북한 정부가 무역 및 상업에 우선순위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인터넷 경제신문 ‘미니언빌’을 인용해 19일 전함.
- 앵트 회장은 최근 ‘미니언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사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의 변화 덕분에 북한 주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힘. 이어 “북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업 제안서를 받고 있다”며 “과거에 이런 북한 사람들의 적극적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임.
- 북한 전문사이트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워치’를 운영하는 커티스 멜빈씨도 RFA에 “예전에 북한에서 상업적 홍보나 광고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외국기업들이 종종 북한에서 무역 박람회를 열거나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스위스 대북사업가 "北, 무역·상업에 우선순위"", 2013.1.19

□ 北 김정은 시대 첫 자연개조사업은 축산단지 조성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 등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해온 북한에서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음.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7일 “세포등판을 나라의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전면시키기 위한 사업이 전 국가적인 관심 속에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인민군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세포등판은 날을 따라 몰라보게 변모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매체에 따르면 세포등판은 강원도의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의 평평하고 광활한 대지를 말함. 이곳을 개간해 수만 정보의 인공 및 자연풀밭과 무, 돼지감자, 사탕무밭을 조성하고 소, 양, 염소, 토끼, 돼지를 기를 수 있는 수백 동

의 축사와 20여 동의 축산물 가공공장, 저류지, 방목도로, 1천여 가구의 직원용 주택을 건설하며 방풍림을 형성하는 방대한 공사임.

-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작년에 희천발전소, 평양시 충전거리, 민속공원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완공했지만, 이 사업들은 모두 김정일 시대에 이미 시작됐던 것”이라며 “세포등관 개간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김정은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北 김정은 시대 첫 자연개조사업은 축산단지 조성", 2013.1.20

지난해 北中교역액 또 사상 최대치...60억 달러 육박

- 30일 중국 세관 당국이 집계한 북중 교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2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34억 4,570만 달러, 수입액은 24억 8,730만 달러로 총 교역규모는 59억 3,200만 달러로 나타남.
- 이는 교역액 56억 2천만 달러(수출 31억 6,500만 달러·수입 24억 6,4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1년에 비해 3억 1,200만 달러(5.5%)가 늘어난 것임. 또 중국의 대북 수입은 거의 늘지 않았지만 대북 수출은 3억 달러 정도 증가함.
-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9억 5,840만 달러(1조 389억 원)를 기록,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음. 2011년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7억 100만 달러였음.
- 한국무역협회는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상품을 팔고 상대적으로 비싼 가공품을 들여오는 무역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연합뉴스, "지난해 北中교역액 또 사상 최대치...60억 달러 육박", 2013.1.30

2. 식량 사정

양강도 감자 배급량 1개월 분 줄어 농민 울상

- 북한 양강도의 대표 농작물인 감자가 여름 풍수해와 가을 냉해 등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양강도 대흥단군 등에서는 9월 이후 생

산한 감자가 한 해 생산량의 70%를 차지함.

- 양강도 소식통은 10월 말에 이뤄진 감자 배급량을 설명하면서 “매년 가을 감자 배급은 3개월분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작년에는 3개월분으로 200kg을 받았는데 올해는 2개월 분 120kg에 그쳤다”고 말함. 이 때문에 초겨울 식량 걱정을 하는 가정들이 늘었다고 소식통은 전함. 양강도는 고원지대 특성 때문에 옥수수 대신 감자를 주식으로 함.
- 이어 “올해 감자알이 들 무렵인 7월 말과 8월 초에 비가 많이 내려 감자밭에 물이 많이 고였다”면서 “감자알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데다 가을에 냉해까지 받아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함. 그는 “겨울 식량 사정도 어렵지만 내년 초가 더 걱정”이라고 말함.

데일리NK, "양강도 감자 배급량 1개월 분 줄어 농민 울상", 2012.11.2

□ 北, 12월 식량배급 390g... "권장량엔 미달"

- 북한 당국의 12월 식량 배급량은 주민 한 명당 하루 390g으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유엔의 식량구호기구가 밝힘.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의 레오 반데르벨덴 북한 담당 부대변인이 2일 “북한 당국의 지난달 식량 배급은 2011년 12월 주민 한 명당 하루 375g보다도 4% 증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함.
- 반데르벨덴 북한담당 부대변인은 “12월 식량배급량이 전달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유엔이 북한 당국에 권고한 1인당 573g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지적함.
- 반데르벨덴 부대변인은 “지난해 북한의 작황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영향으로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도 추수가 시작된 10월부터 증가했다”고 설명함.

노컷뉴스, "北, 12월 식량배급 390g... "권장량엔 미달"", 2013.1.3

□ EU "북한 식량사정 호전...올해 대북 지원계획 없어"

-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데이비드 샤록 대변인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샤록 대변인은 작년 10월 EU 조사단이 북한에서 식량 사정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서 “북한의 작황이 전년보다 좋아졌고 당국의 식량 배급량도 늘었다”고 설명함.
- 샤록 대변인은 그러나 EU의 올해 긴급식량 지원 대상에서 북한이 제외되긴 했지만, 자연재해 등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EU "북한 식량사정 호전...올해 대북 지원계획 없어"", 2013.1.15

□ 北, 작년 12월 中서 곡물 종자 53톤 수입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북한의 2012년 대중(對中) 곡물 및 비료 수입 동향’에서 “북한의 지난해 12월 곡물 수입에서 특이한 점은 벼와 옥수수 종자를 각각 36톤, 17톤 구입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곡물 종자를 수입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밝힘.
- 북한의 ha당 종자 과종량이 벼 120kg, 옥수수가 50kg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달 수입한 곡물 종자는 각각 300ha(300만㎡), 340ha(340만㎡)에 과종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권 연구위원이 설명함.
- 권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달 수입한 곡물 종자는 협동농장 1곳에 과종할 수 있는 분량이고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이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과 중국이 지난해 10월 ‘농업부문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양국 간 농업 협력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힘.
- 지난해 1년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28만 1,633톤으로 2011년에 비해 25.2% 감소, 3년 만에 30만 톤을 밑돌았음.

연합뉴스, "北, 작년 12월 中서 곡물 종자 53톤 수입", 2013.1.30

3. 가격 추이

□ '고공행진' 北쌀값, 상승세 주춤

- 반년 넘게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지난 9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북한의 쌀값이 지난달에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16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주기적으로 집계해 공개하는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29일 평양, 신의주, 혜산 등 북한 3개 주요도시 쌀값은 전달 대비 kg당 100~800원(북한원화) 떨어진 6,000원, 6,100원, 6,200원이었음.
- 환율의 경우 평양, 혜산이 각각 달러당 70원, 40원씩 떨어진 6,300원, 6,460원이었고 신의주는 250원 오른 6,460원을 기록함.
- 데일리NK는 "북한 전역의 쌀값이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것은 현재 콩, 옥수수확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연합뉴스, "고공행진' 北쌀값, 상승세 주춤", 2012.11.16

□ 北, 외화단속 강화하자 환율·물가 급등

- 북한 당국이 외화검열을 강화하면서 장마당에서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양강도 소식통은 22일 "북한당국의 외화단속 강화로 양강도 혜산장마당의 환율은 외화검열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1월 10일에는 중국인민폐 1위안 대 북한돈 1,020원에 거래됐으나, 11월 20일에는 1,260원까지 올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또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식량가격도 올라 가을걷이가 끝난 11월 초에 중국산 입쌀 1kg에 5,000원 중반으로 내렸지만 11월 20일에는 6,000원까지 올랐다"고 말함.
-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외화검열 그루빠(그룹)가 조직돼 국가무역기관 외에는 일체 외화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각 도마다 외화벌이를 위해 조직된 '수출원천동원사업소'들도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함.
노컷뉴스, "北, 외화단속 강화하자 환율·물가 급등", 2012.11.23

□ 北 쌀값·환율, 김정일 1주기 직전 급상승

- 반년 넘게 '고공행진'을 거듭하다 지난 10월 소폭 하락했던 북한의 쌀값·환율이 이달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17일)를 앞두고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함.
- 22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집계해 공개하는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0일 평양, 신의주, 혜산 등 북한 3개 주요도시 쌀값은 전달 대비 kg당 300~700원(북한 원화) 상승한 6,400원, 6,800원, 6,500원을 각각 기록함.

- 특히 미국달러 대비 북한 원화의 환율이 크게 상승해 평양, 신의주, 혜산이 각각 전달 대비 1,500원, 1,300원, 2천원 오른 7,800원, 8천원, 8,450원을 기록함. 이는 평양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난 9월(6,370원)보다 높은 환율임.
- 데일리NK는 대북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 애도기간을 맞아 북중 무역을 차단하자 상인들이 쌀을 내놓지 않고 달러상도 달러를 풀지 않아 쌀값·환율이 상승한 것 같다고 분석함.

연합뉴스, "北 쌀값·환율, 김정일 1주기 직전 급상승", 2012.12.22

□ 北김정은 '통치 2년' 쌀값환율 불안정 여전

-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각종 경제지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쌀값과 환율은 1년 전과 비교해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31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집계해 공개하는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2~9일 기준으로 평양과 신의주, 혜산의 쌀값은 2주 전과 비교해 1kg당 각각 300원, 200원, 100원 오른 6,700원, 7,000원, 6,600원을 기록함.
- 1달러당 북한 원화의 환율 역시 평양, 신의주, 혜산이 각각 1,300원, 950원, 300원이 상승한 9,100원, 8,950원, 8,750원으로 파악됨.
- 북한의 이같은 쌀값과 환율은 역대 최고치임. 김정은 체제가 본격 개막한 지난해 1월 15~21일 평양지역 쌀값(3,200원), 환율(4,400원)과 비교하면 100% 넘게 오른 것임.
- 데일리NK는 신년 들어 이어진 쌀값과 환율 상승세는 북한의 대규모 정치적 행사 등으로 북-중간 식량거래가 위축됐고 주민들의 달러 선호현상이 계속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함.

연합뉴스, "北김정은 '통치 2년' 쌀값환율 불안정 여전", 2013.1.31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4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2년 10월 중 남북교역액은 18,813만 달러로 전년 동월 15,173만 달러에 비해 24.0% 증가(전월 17,638만 달러 대비 6.7% 증가)
- 반입은 10,53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325만 달러에 비해 26.6% 증가(전월 9,849만 달러 대비 7.0%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2.0%, 전자전기제품 36.9%, 생활용품 8.2%, 기계류 5.8%, 화학공업제품 3.4% 등임.
- 반출은 8,277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849만 달러에 비해 20.9% 증가(전월 7,788만 달러 대비 6.3%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4.4%, 전자전기제품 31.1%, 화학공업제품 7.9%, 기계류 8.0% 생활용품 6.2% 등임.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2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85.7만 달러로 전월 69.3만 달러 대비 23.7% 증가하고 10월 전체 반입액 10,536만 달러의 0.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45.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36.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건축용목제품 등 임산물이 3.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3%)를 차지했음.

*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2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99.6만 달러로 전월 307.2만 달러 대비 2.5% 감소하고 10월 전체 반출액 8,277만 달러의 3.6%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61.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2%), 분유 등 축산물이 15.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물이 9.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13.1달러(전체 반출액의 0.2%)를 차지했음.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2년 11월 중 남북교역액은 17,724만 달러로 전년 동월 14,670만 달러에 비해 20.8% 증가(전월 18,813만 달러 대비 5.8% 감소)
- 반입은 9,38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570만 달러에 비해 24.0% 증가(전월 10,536만 달러 대비 10.9%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전자전기제품 38.7%, 섬유류 37.9%, 생활용품 9.2%, 기계류 5.7%, 화학공업제품 4.6% 등임.
- 반출은 8,34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100만 달러에 비해 17.5% 증가(전월 8,277만 달러 대비 0.8%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4.0%, 전자전기제품 29.0%, 기계류 9.2%, 화학공업제품 8.7%, 생활용품 6.0% 등임.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2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76.7만 달러로 전월 85.7만 달러 대비 10.5% 감소하고 11월 전체 반입액 9,383만 달러의 0.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43.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5%), 어패류 등 수산물이 32.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건축용목제품 등 임산물이 1.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2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99.9만 달러로 전월 299.6만 달러 대비 0.1% 증가하고 11월 전체 반출액 8,341만 달러의 3.6%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51.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0%), 분유 등 축산물이 32.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4%), 합판 등 임산물이 5.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6%), 어패류 등 수산물이 11.4달러(전체 반출액의 0.1%)를 차지했음.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2년 12월 중 남북교역액은 16,023만 달러로 전년 동월 14,193만 달러에 비해 12.9% 증가(전월 17,770만 달러 대비 9.8% 감소)
- 반입은 8,624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453만 달러에 비해 15.7% 증가(전월 9,383만 달러 대비 8.1%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1.7%, 전자전기제품 34.1%, 생활용품 9.5%, 기계류 6.0%, 화학공업제품 4.8% 등임.
- 반출은 7,40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739만 달러에 비해 9.8% 증가(전월 8,387만 달러 대비 11.8%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5.2%, 전자전기제품 27.9%, 기계류 8.6%, 화학공업제품 7.7%, 광산물 6.4% 등임.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2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65.3만 달러로 전월 76.7만 달러 대비 14.9% 감소하고 12월 전체 반입액 8,624만 달러의 0.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37.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26.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건축용목제품 등 임산물이 0.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2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54.0만 달러로 전월 299.9만 달러 대비 15.3% 감소하고 12월 전체 반출액 7,400만 달러의 3.4%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31.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1%), 분유 등 축산물이 13.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합판 등 임산물이 5.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7%), 어패류 등 수산물이 7.6달러(전체 반출액의 0.1%)를 차지했음.

표 1. 2012년 10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35,235	458	0.4	농산물	1,193,317	2,611	3.2
참깨	28,470	125		쌀	1,882	4	
들깨	19,180	69		보리	16	0	
기타채유종실	304	1		감자	50	0	
고추	1,370	7		대두	4	0	
밤	24,500	78		밀가루	503,088	228	
은행	3,550	11		참깨	42,320	154	
참기름	7,076	49		들깨	52,100	139	
들기름	13,319	71		사과	9	0	
기타유지가공품	15,642	39		오렌지	9	0	
박류	19,200	1		상추	6	0	
기타소스류	2,624	7		시금치	8	0	
				파	80	0	
				고추	4,004	15	
				기타채소	81	0	
				국화	30	1	
				기타화초	1,150	2	
				밤	35,200	53	
				은행	4,800	10	
				기타산식물	90	1	
				대두유	16,320	30	
				참기름	3,240	21	
				기타유지가공품	36	0	
				기타식물성물질	200	0	
				기타소스류	3,481	10	
				향신료	240	1	
				커피조제품	10,617	52	
				녹차	13	0	
				홍차	4	0	
				제조담배	2,130	88	
				인삼류	0	148	
				소주	4,540	6	
				맥주	8,260	9	
				위스키	1,325	105	
				기타주류	791	5	
				정당	177	0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물	3,201	2	
				곡류가공품	59	0	
				빵	168,563	630	
				면류	109,285	378	
				기타농산가공품	214,608	488	
				견	300	17	
				면	1,000	15	
축산물	-	-	-	축산물	25,806	156	0.2
				소시지	23,780	143	
				로얄제리	720	9	
				기타낙농품	1,306	4	
임산물	8,700	35	0.03	임산물	98,352	97	0.1
제재목	3,800	14		합판	55,020	43	
합판	500	2		섬유판	7,049	8	
기타목재류	4,400	20		건축용목제품	25,880	36	
				기타목재생활용품	273	3	
				기타목재류	9,600	6	
				수목류	500	1	
				기타임산부산물	30	0	
수산물	294,200	364	0.3	수산물	120,797	131	0.2
기타조개	108,440	113		투스	6,093	85	
미역	185,760	251		미역	114,704	46	
합 계	738,135	857	0.8	합 계	1,438,272	2,996	3.6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6호(2012.10.1~10.31)

표 2. 2012년 1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15,658	433	0.5	농산물	826,201	2,511	3.0
참깨	44,100	200		쌀	5,144	11	
들깨	16,720	64		보리	10	0	
고추	3,140	28		기타곡류	10	0	
밤	25,600	82		기타두류	10	0	
은행	4,600	15		밀가루	4,632	3	
참기름	1,620	7		참깨	83,520	303	
들기름	4,775	21		들깨	29,740	85	
기타유지가공품	6,003	16		기타채유종실	12,000	31	
박류	9,100	0		사과	801	2	
				감	14	0	
				오렌지	199	0	
				감귤	250	1	
				포도	9	0	
				배추	4,000	3	
				무	300	0	
				고추	3,505	27	
				기타채소	25	0	
				기타화초	50	0	
				밤	68,400	103	
				은행	9,200	18	
				기타산식물	500	0	
				대두유	16,628	33	
				기타소스류	4,119	12	
				향신료	244	1	
				커피조제품	14,291	69	
				제조담배	3,851	79	
				소주	1,280	2	
				맥주	2,940	4	
				위스키	199	10	
				기타주류	675	2	
				정당	190	0	
				물	6,253	4	
				과일주스	20	0	
				기타음료	270	0	
				비스킷	28	0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곡류가공품	25	0	
				빵	203,180	767	
				면류	127,083	424	
				기타농산가공품	222,006	480	
				건	600	34	
축산물	-	-	-	축산물	49,611	324	0.4
				소시지	26,948	186	
				기타육류가공품	20,480	125	
				로알제리	500	6	
				기타낙농품	1,683	7	
임산물	2,100	10	0.01	임산물	52,428	51	0.06
제재목	1,800	10		합판	7,880	9	
기타목재류	300	0		단판	1,310	2	
				섬유판	17,980	14	
				건축용목제품	15,640	19	
				목재틀	9	2	
				기타목재류	9,609	4	
수산물	376,400	324	0.3	수산물	145,161	114	0.1
피조개	820	1		툇	4,093	57	
기타조개	119,080	102		미역	141,068	56	
미역	256,500	221					
합 계	494,158	767	0.8	합 계	1,073,401	2,999	3.6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7호(2012.11.1~11.30)

표 3. 2012년 1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12,603	378	0.4	농산물	725,654	2,311	3.1
참깨	33,260	145		쌀	6,240	11	
들깨	9,289	35		보리	2	0	
밤	24,800	79		밀가루	4,632	3	
은행	2,300	7		참깨	30,000	108	
참기름	5,787	30		들깨	59,550	167	
들기름	13,253	59		기타채유종실	15,000	39	
기타유지가공품	8,514	22		사과	9	0	
박류	15,400	1		감	14	0	
				오렌지	43	0	
				감귤	1,448	2	
				고추	3,500	19	
				기타채소	65	0	
				밤	32,800	49	
				은행	2,400	5	
				대두유	14,850	33	
				들기름	144	1	
				기타식물성유지	36	0	
				식물성액즙	36	0	
				기타소스류	12,670	57	
				향신료	306	1	
				커피조제품	10,898	112	
				녹차	32	1	
				소주	2,670	3	
				맥주	3,260	3	
				위스키	168	13	
				기타주류	493	1	
				정당	185	0	
				물	2,427	1	
				기타음료	45	0	
				곡류가공품	34	0	
				빵	186,071	719	
				면류	124,834	454	
				기타농산가공품	210,192	473	
				견	600	34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17,495	133	0.2
				닭고기	100	0	
				소시지	14,583	118	
				로얄제리	654	8	
				기타낙농품	1,438	5	
				난류	720	2	
임산물	8,500	7	0.01	임산물	22,247	21	0.07
건축용목제품	8,500	7		합판	2,080	3	
				섬유판	18,652	16	
				건축용목제품	1,300	1	
				젓가락	15	0	
				기타목재생활용품	200	0	
수산물	225,272	269	0.3	수산물	16,109	76	0.1
기타조개	73,080	60		툰	4,954	69	
툰	3,805	66		미역	11,155	6	
미역	148,387	143					
합 계	346,375	653	0.8	합 계	781,505	2,540	3.4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8호(2012.12.1~12.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2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189,421
2010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175,607
2011	33,762	363	913,663	40,156	676	800,192	1,713,855	△113,471
소 계*	230,452	803	8,062,841	252,189	1,090	8,258,261	16,321,102	195,420
2012.1	2,743	188	77,583	3,381	410	65,848	143,431	△11,735
2012.2	2,809	179	81,106	3,519	414	69,546	150,652	△11,560
2012.3	3,147	203	91,478	3,746	412	73,041	164,519	△18,437
2012.4	2,719	193	82,861	3,249	408	60,237	143,098	△22,624
2012.5	3,081	207	93,358	3,835	431	71,421	164,779	△21,937
2012.6	2,965	201	84,086	3,819	442	79,129	163,215	△4,957
2012.7	3,024	202	88,063	3,881	434	80,628	168,691	△7,435
2012.8	3,079	186	91,508	3,875	446	79,275	170,783	△12,233
2012.9	3,164	208	98,491	3,886	452	77,395	175,886	△21,096
2012.10	3,310	211	105,357	3,916	440	82,764	188,121	△22,593
2012.11	3,435	200	93,827	4,333	457	83,870	177,697	△9,957
2012.12	3,028	199	86,235	3,871	438	73,999	160,234	△12,236
소 계	36,504	377	1,073,952	45,311	705	897,153	1,971,106	△176,800
총 계	266,956	812	9,136,793	297,500	1,096	9,155,414	18,292,208	18,620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계*는 1989~2011년까지의 교역실적을 합산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8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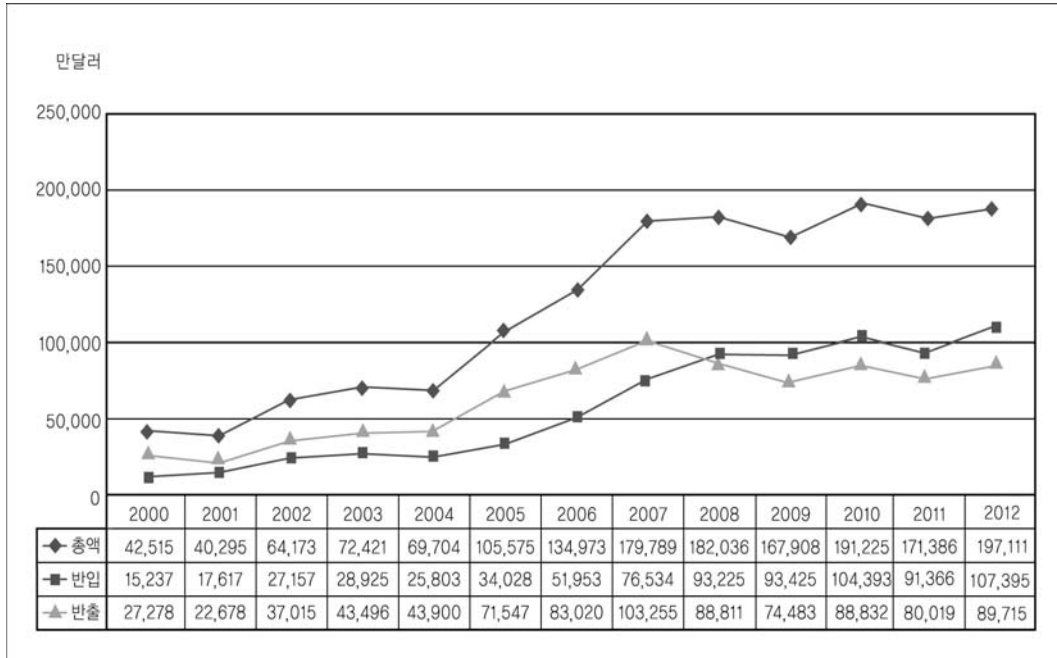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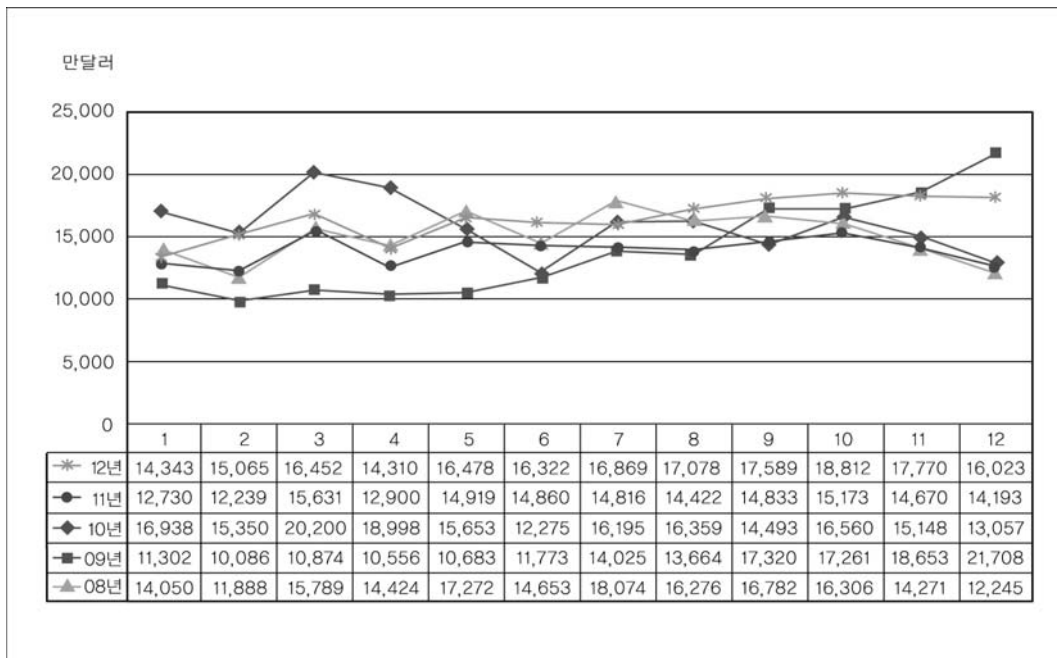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	183	137,058	207,913	65,516	1,669	6,278	4,685	78,238	286,151	△129,675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13,729
2010	25,001	-	113	63,141	88,255	36,324	1,513	794	2,661	41,292	129,547	△46,963
2011	3,343	-	0	2,770	8,418	31,931	641	318	2,167	27,467	35,885	19,049
소계*	517,879	3,317	51,145	1,023,544	1,598,210	969,558	26,662	29,742	27,642	1,046,103	2,644,313	△399,565
2012.1	321	-	-	71	392	1,867	12	12	25	1,916	2,308	1,524
2012.2	273	-	-	26	299	1,754	37	42	263	2,097	2,396	1,798
2012.3	295	-	-	125	420	2,500	31	62	318	2,911	3,331	2,491
2012.4	311	-	0	124	436	1,742	22	70	237	2,070	2,506	1,634
2012.5	359	-	0	187	546	2,101	70	767	285	3,223	3,769	2,677
2012.6	326	-	5	156	487	1,979	72	17	170	2,238	2,725	1,751
2012.7	341	-	37	226	604	2,014	106	24	130	2,274	2,878	1,670
2012.8	493	-	35	98	626	2,456	162	40	89	2,747	3,373	2,121
2012.9	506	-	51	94	652	2,463	129	36	20	2,649	3,301	1,997
2012.10	458	-	35	251	744	2,237	156	97	131	2,622	3,366	1,878
2012.11	433	-	10	324	767	2,511	324	51	114	2,999	3,766	2,232
2012.12	378	-	7	269	653	2,311	133	21	76	2,540	3,193	1,887
소계	4,494	-	180	1,951	6,626	25,935	1,254	1,239	1,858	30,286	36,912	23,660
총계	522,373	3,317	51,325	1,025,495	1,604,836	995,493	27,916	30,981	29,500	1,076,389	2,681,225	△375,905

주: 1)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소계*는 1989~2011년까지의 교역실적을 합산한 것임.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56~258.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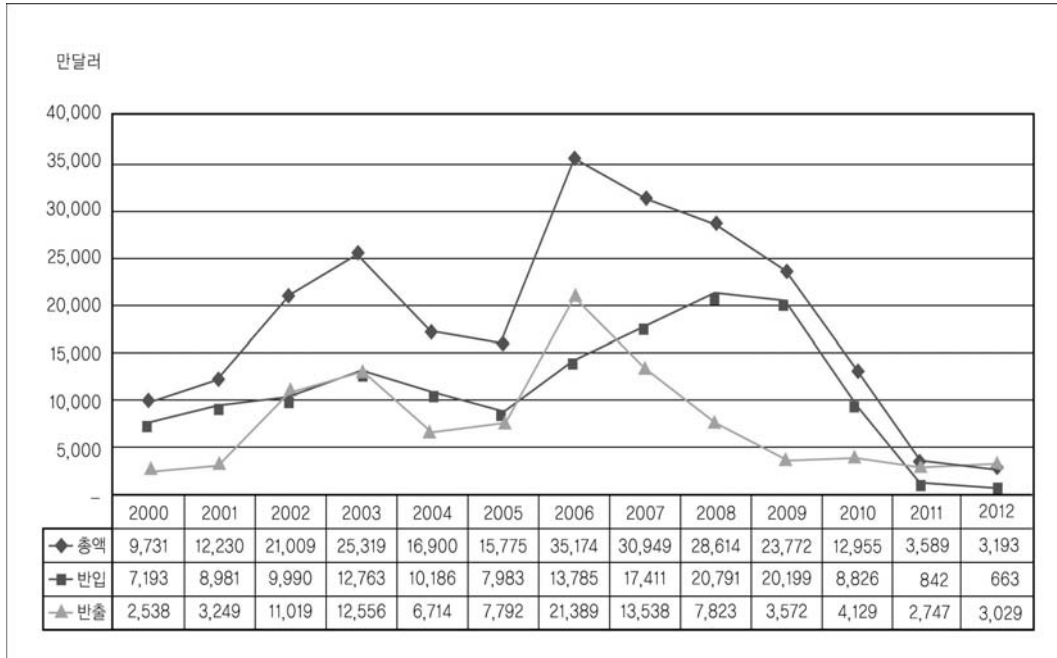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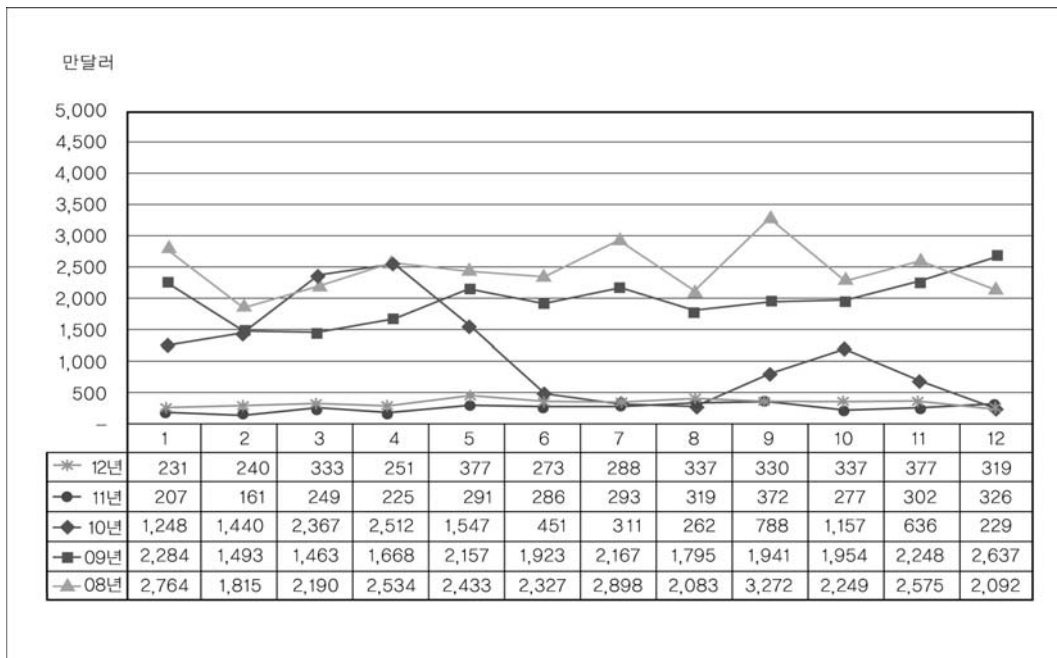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지원 동향

대북지원단체, 3억원 상당 물품 北에 전달

- 기독교 계열의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회장 홍정길 목사)은 4일 쇠고기 수프와 의류 등 3억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배편으로 북한으로 향할 지원 물품은 쇠고기 수프(1억5천만원 상당), 아동용 의류(1억1천만원 상당), 콩우유(2천만원 상당) 등임.
- 이번 지원 물자는 인천항에서 출발해 5일쯤 중국 다롄(大連)에 도착한 뒤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환적해 들어갈 예정이지만 언제 남포항에 도착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음.
- 남북나눔운동의 신명철 본부장은 식품업체 오투기가 쇠고기 수프, 의류업체 이랜드가 아동용 의류를 각각 기증해 북한에 지원하게 됐다며 콩우유는 후원자들이 보내 준 성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함.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대북지원단체, 3억원 상당 물품 北에 전달" 2012.12.4)

인천시 남북교류사업 신정부 출범 맞춰 시동

- 인천시가 올해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과 체육·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사업 등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음.
- 인천시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사업으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20억원)으로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 체육교류, 사회문화교류 등 4개 분야 10개 단위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 우선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보탬을 주기위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생필품, 의약품 등과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방역 물품 및 예방 약품을 지원키로 함.
- 수해·재난 발생시 옥수수과 밀가루 등의 식량, 생필품 등 2억원 상당의 구호물품도 지원할 방침임. 시는 지난 2007~2010년 3차례에 걸쳐 옥수수 1만700톤 등 모두 9억원 상당의 구호품을 지원했음.

- 황해도 일대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를 위해 북측과 협의해 산림복구지역을 지정,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잣나무, 소나무 등 조림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자료: <http://www.yonhapnews.com/> (연합뉴스, "인천시 남북교류사업 신청부 출범 맞춰 시동" 2013. 1. 17)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2.12

구분	목표 (만달러)	실적 ¹⁾ (만달러)	목표 달성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5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계속)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1차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2차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13차 '07.1~12	-	9,966	-	한국 2,437, 중앙긴급구호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14차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15차 '09.1~12	-	4,193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178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44, 스위스 302,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17차 '11.1~12	-	9,771	-	유엔기구 1,682,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41, EU 1,429, 스웨덴 894, 스위스 838, 호주 705, 러시아 500, 브라질 402 등
18차 '12.1~12	-	11,748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292, 유엔기구 10,443, 한국 826, 캐나다 799, 스위스 714, 러시아 500, 스웨덴 334 등
총 계	-	200,008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ember 31, 2012)

표 2. 2012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12.1.1~12.31)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Caritas	룩셈부르크	96,104	강원도 보건시설 수리 및 재건축, 식량지원
Caritas Germany	독일	559,701	사회적 약자 지원
German Agro Action	독일	220,588	평안북도 홍수 피해 주민 인도지원 (VN05321.50 PRK 01/12)
	독일	1,055,901	봄감자 및 겨울작물 생산 및 저장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BMZ-No: 2012.1823.9)
		소계 1,276,489	
FAO	CERF	1,897,244	취약농민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12-FAO-001)
	스웨덴	446,562	씨감자 증식 및 저장시설 개선 지원
	이탈리아	212,912	2012년 가을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개선 긴급지원
	EU인도지원국	1,937,984	2012년 가을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개선 긴급지원
		소계 4,494,702	
국제적십자연맹	스위스	544,070	인도지원
적십월사	캐나다	19,920	NFLs, WASH (M013356)
	캐나다	30,272	태풍 블라벤 피해 긴급구호 (M013356)
		소계 50,192	
노르웨이적십자사	노르웨이	1,744,896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및 대비(PRK-12/0001)
독일적십자사	독일	248,756	청정 식수 공급을 통한 위생조건 개선
스웨덴적십자사	스웨덴	2,360,259	의약품 지원
Handicap International	스웨덴	430,003	만홍소아병원 및 함흥재활센터 지원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개선
	EU	430,003	
		소계 860,006	
Premiere Urgence	프랑스	198,758	유아원 지원
Save the Children	덴마크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독일	308,359	홍수대비 지역주민 역량강화(VN05 385.28/3 13/12)
	EU인도지원국	153,526	홍수 긴급지원(ECHO/DRF/BDU/2012/92013)
		소계 552,043	
스웨덴 민간구호기구 (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cy, MSB)	스웨덴	99,405	함대 관리자 파견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프랑스	258,398	신흥군 및 영광군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식량 증산사업
	프랑스	173,913	유아원 지원
	프랑스	77,792	강원도 지역 태풍 피해 지원
	EU	289,227	도시 취약계층을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 개선
		소계	799,330
German Agro Action	독일	220,588	평안북도 홍수 피해 주민 인도지원 (VN05321,50 PRK 01/12)
	독일	1,055,901	봄감자 및 겨울작물 생산 및 저장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BMZ-No: 2012.1823,9)
		소계	2,344,912
UNPF	UNFPA	122,989	남녀 출산 건강 증진
	CERF	100,000	홍수 피해 지역 출산 건강 증진
	UNFPA	824,210	남녀 출산 건강 증진
	CERF	150,000	모성 안전
		소계	1,197,199
WFP	아일랜드	245,098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이월자금	40,579,45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WFP미분류	9,461,258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호주	2,018,163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스위스	4,353,36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민간	8,212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PRR0 200114)
	노르웨이	894,93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스위스	557,414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룩셈부르크	327,654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PRR0 200114)
	캐나다	4,012,036	긴급식량지원(MO13689)
	캐나다	2,988,048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CERF	6,468,28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2-WFP-006)
	CERF	654,412	홍수 피해지역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중국	1,000,000	북한 남부지역 홍수 피해자 지원
	쿠바	155,241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브라질	3,642,288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브라질	472,772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노르웨이	872,600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인도네시아	2,000,000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남아프리카	123,222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러시아	5,000,000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중국	1,000,000	북한 남부지방 홍수 피해자 지원
		소계	86,834,462

(계속)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UNICEF	CERF	400,726	홍수피해 긴급 구호 지원 (CERF 12-CEF-98)
	CERF	1,225,000	94개 군/동 생명구호 지원 (12-CEF-003)
	CERF	937,413	급성영양실조 종합관리 (M013666)
	한국	3,874,702	여성 및 5세 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민간	85,014	여성 및 5세 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소계 6,522,855	
WHO	이월자금	224,193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이월자금	165,805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GAVI연합	117,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CERF	1,224,994	모성 및 어린이 생존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12-WHO-004)
	CERF	800,002	홍수 피해지역 주민 긴급생명구제 지원
	WHO	35,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한국	4,390,002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긴급 서비스
	여러단체	73,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소계 7,029,996	
미분류 지원	스위스	204,082	홍수 피해자 긴급 구호 (7F-08508.01)
	스위스	622,449	WASH 프로그램 (7F-07222.01)
	스위스	858,065	평양 SDC 사무소 운영경비(7F-07980.02)
	이탈리아	322,981	이탈리아가 지원한 긴급구호활동 조정 , 기술지원, 모니터링 활동 지원
		소계 2,007,577	
합 계		117,476,800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ember 31, 2012)

표 3. 2012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12.1.1~12.31)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이탈리아	FAO	212,912	2012년 가을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개선 긴급지원
	CERF	FAO	1,987,244	취약농민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12-FAO-001)
	스웨덴	FAO	446,562	씨감자 증식 및 저장시설 개선 지원
	EU인도지원국	FAO	1,937,984	2012년 가을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개선 긴급지원
			소계 5,388,931	
조정 및 지원서비스	스웨덴	MSB	99,405	함대 관리자 파견
	이탈리아	여러단체	322,981	이탈리아가 지원한 긴급활동 조정 지원
	노르웨이	노르웨이 적십자사	1,744,896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및 대비(PRK-12/0001)
	독일	Save the Children	308,359	홍수대비 지역주민 역량강화(VN05 385.28/3 13/12)
	스위스	미분류	858,065	SDC 평양사무소 운영비(7F-07989.02)
		소계 2,475,641		
식량	프랑스	TGH	258,398	신흥군 및 영광군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식량 증산사업
	CERF	WFP	654,412	홍수 피해지역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독일	GAA	1,055,901	봄감자 및 겨울작물 생산 및 저장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BMZ-No: 2012.1823.9)
	프랑스	TGH	173,913	유아원 지원
	프랑스	Premiere Urgence	198,758	유아원 지원
	중국	WFP	1,000,000	북한 남부지역 홍수 피해자 지원
			소계 3,341,382	

(계속)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보건	CERF	WHO	800,002	홍수 피해지역 주민 긴급생명구제 지원	
	CERF	UNICEF	1,225,000	94개 리동 주민에 대한 긴급보건서비스 지원(12-CEF-003)	
	CERF	WFP	6,468,28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2-WFP-006)	
	CERF	WHO	1,224,994	모성 및 어린이 생존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12-WHO-004)	
	CERF	UNPF	150,000	모성 안전 지원(12-FPA-001)	
	CERF	UNPF	100,000	홍수 피해 지역 출산 건강 증진	
	캐나다	UNICEF	937,413	급성영양실조 종합관리(MO13666)	
	캐나다	WFP	4,012,036	긴급식량지원(MO13689)	
	캐나다	WFP	2,988,048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호주	WFP	2,018,163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스위스	WFP	4,353,36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스위스	WFP	557,414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스웨덴	Handicap International	430,003	만홍소아병원 및 함흥재활센터 지원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개선	
	노르웨이	WFP	894,93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아일랜드	WFP	245,098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쿠바	WFP	155,241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브라질	WFP	472,772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브라질	WFP	3,642,288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러시아	WFP	5,000,000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노르웨이	WFP	872,600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중국	WFP	1,000,000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인도네시아	WFP	2,000,000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남아프리카	WFP	123,222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룩셈부르크	WFP	327,654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PRR0 200114)	
	민간	WFP	8,212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PRR0 200114	
	민간	UNICEF	85,014	여성 및 5세 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한국	UNICEF	3,874,702	여성 및 5세 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한국	WHO	4,390,002	어머니와 어린이의 기본 생명 구제를 위한 긴급서비스 강화	
	GAVI연합	WHO	117,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여러단체	WHO	73,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WFP미분류	WFP	9,461,258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UNFPA	UNPF	122,989	남녀 출산 건강 증진
		UNFPA	UNPF	824,210	남녀 출산 건강 증진
		WHO	WHO	35,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이월자금	WFP	40,579,45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이월자금	WHO	224,193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이월자금	WHO	165,805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소계 81,330,269		

(계속)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물과 위생	CERF	UNICEF	400,726	홍수피해 긴급지원(CERF 12-CEF-98)
	스위스	여러단체	622,449	WASH 프로그램(7F-07222.01)
	프랑스	TGH	77,792	강원도 태풍피해 인프라 복구
	EU	TGH	289,227	도시 취약계층 식수 및 위생시설 개선
	독일	독일적십자사	248,756	청정 식수 공급을 통한 위생조건 개선
			소계	
			1,638,950	
미분류	EU인도지원	Save the Children	153,526	홍수지역 긴급지원 (ECHO/DRF/BUD/2012/92013)
	사무국	여러단체	204,082	2012년 7월 홍수 피해 희생자 긴급지원
	스위스	적십월사	30,272	태풍 볼라벤 피해 긴급구호 (M013356)
	캐나다	적십월사	19,920	NFLs, WASH (M013356)
	독일	GAA	220,588	평안북도 홍수피해자 인도지원
	덴마크	Save the Children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스위스	국제적십자연맹	544,070	인도지원
	스웨덴	스웨덴적십자사	2,360,259	의약품 지원
	독일	카리타스 독일	559,701	사회적 약자 지원
	EU	Handicap Int.	430,003	함흥소아병원 및 함흥재활센터 지원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개선
룩셈부르크	Caritas	96,104	강원도 보건시설 수리, 재건축, 식량 지원	
			소계	
			4,708,683	
합 계			117,476,800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ember 31, 2012)

표 4. 2012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12.1.1~12.31)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중앙긴급구호 기금(CERF)	WFP	6,468,28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2-WFP-006)
	FAO	1,897,244	취약농민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12-FAO-001)
	UNICEF	1,225,000	94개 리동 주민에 대한 긴급보건서비스 지원(12-CEF-003)
	WHO	1,224,994	모성 및 어린이 생존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12-WHO-004)
	UNPF	150,000	모성 안전 지원(12-FPA-001)
	UNPF	100,000	홍수 피해 지역 출산 건강 증진
	WFP	654,412	홍수 피해지역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UNICEF	400,726	홍수피해 긴급 구호 지원 (CERF 12-CEF-98)
	WHO	800,002	홍수 피해지역 주민 긴급생명구제 지원
		소계 12,920,667	
이월자금	WFP	40,579,45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WHO	224,193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WHO	165,805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소계 40,969,453	
미분류	WFP	9,461,258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UNPF	824,210	남녀 출산 건강 증진
	WHO	35,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UNPF	122,989	남녀 출산 건강 증진
		소계 10,443,457	
호주	WFP	2,018,163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브라질	WFP	3,642,288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WFP	472,772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소계 4,115,060	
캐나다	UNICEF	937,413	급성영양실조 종합관리(M013666)
	WFP	4,012,036	긴급식량지원(M013689)
	적십월사	19,920	NFLs, WASH (M013356)
	적십월사	30,272	태풍 볼라벤 피해 긴급구호 (M013356)
	WFP	2,988,048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소계 7,987,689	
중국	WFP	1,000,000	북한 남부지역 홍수피해 희생자 지원
	WFP	1,000,000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소계 2,000,000	
덴마크	Save the Children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계속)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프랑스	TGH	258,398	신흥군 및 영광군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식량 증산사업
	TGH	173,913	유아원 지원
	TGH	77,792	강원도 지역 태풍 피해 지원
	Premiere Urgence	198,758	유아원 지원
		소계 708,861	
독일	Save the Children	308,359	홍수대비 지역주민 역량강화(VN05 385.28/3 13/12)
	GAA	220,588	평안북도 홍수 피해 주민 인도지원 (VN05321.50 PRK 01/12)
	GAA	1,055,901	봄감자 및 겨울작물 생산 및 저장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BMZ-No: 2012.1823.9)
	독일적십자사 카리타스 독일	248,756 559,701	청정 식수 공급을 통한 위생조건 개선 사회적 약자 지원
		소계 2,393,305	
인도네시아	WFP	2,000,000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아일랜드	WFP	245,098	취약계층 긴급 식량지원(EMOP 200266)
이탈리아	여러단체	322,981	이탈리아가 지원하여 운영중인 긴급구호활동 조정, 기술지원, 모니터링 지원
	FAO	212,912	2012년 가을 취약농가 긴급식량지원
		소계 535,893	
한국	WHO	4,390,002	어머니와 어린이의 기본 생명 구제를 위한 긴급서비스 강화
	UNICEF	3,874,702	여성 및 5세 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소계 8,264,704	
룩셈부르크	WFP	327,654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PRRO 200114)
	카리타스	96,104	강원도 보건시설 수리, 재건축, 식량 지원
		소계 423,758	
노르웨이	노르웨이적십자	1,744,896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및 대비(PRK-12/0001)
	WFP	894,93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WFP	872,600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소계 3,512,431	
스웨덴	MSB	99,405	함대 관리자 파견
	FAO	446,562	씨감자 증식 및 저장시설 개선 지원
	스웨덴적십자사	2,360,259	의약품 지원
	Handicap International	430,003	만홍소아병원 및 함흥재활센터 지원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개선
		소계 3,336,229	

(계속)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스위스	국제적십자연맹	544,070	인도지원
	WFP	557,414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WFP	4,353,365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여러단체	858,065	SCD 평양사무소 운영비(7F-07989.02)
	여러단체	204,082	2012년 7월 홍수피해자 긴급구호
	여러단체	622,449	WASH 프로그램
		소계 6,281,380	
민간	WHO	117,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UNICEF	85,014	여성 및 5세 이하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WFP	8,212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PRRO 200114
		소계 210,226	
러시아	WFP	5,000,000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남아프리카	WFP	123,222	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EMOP 200266)
여러단체	WHO	73,000	모성 및 어린이 기본생명구제 서비스 강화
EU집행부	Save the Children	153,526	홍수 긴급지원(ECHO/DRF/BDU/2012/92013)
	TGH	289,227	도시 취약계층 식수 및 위생시설 개선
	Handicap Int.	430,003	만홍소아병원 및 함흥재활센터 지원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개선
	FAO	1,937,984	2012년 가을 취약 농가의 식량안보 개선 긴급지원
		소계 2,091,510	
합 계		117,476,800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December 31, 2012)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가. 국제기구

WFP, 내년 대북식량지원 예산 1억 달러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WFP 아시아지부의 '2013년 사업예산'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0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발표한 세계 굶주림 지수(Global Hunger Index)에서 심각한 수준인 19점으로 평가돼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국가에 속한다며 내년 사업비로 1억 151만 8,710달러(약 1,091억 3천만원)를 책정함.
- 보고서는 북한 어린이 3명 중 1명이 영양부족 상태, 5명 중 1명은 심각한 저체중 상태라며 어린이에 대한 영양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함.
- WFP는 내년 한 해 동안 1억 달러의 예산으로 북한 주민 240만 명에 약 13만 톤의 식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제사회의 모금 부진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RFA가 전함.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내년 대북식량지원 예산 1억 달러", 2012.12.12)

WFP, 北수해에 곡물 336톤 긴급지원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홍수 피해를 본 북한에 곡물 336톤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전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큰 16개 군에 곡물 336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북한에 지원될 곡물은 주민 6만 명이 2주 동안 하루 400g을 배급받을 수 있는 양이라고 스카우 대변인은 설명함. 북한은 지난 달 30일 유엔에 수해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한 식량과 연료 지원을 요청했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北수해에 곡물 336톤 긴급지원", 2012.8.4)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올해 국제사회 대북지원 전년 대비 30% 증가

- 올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 자료를 인용해 18일 보도함.
- OCHA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약 1억 1,300만 달러(약 1,210억원)로 지난해 8,920만 달러보다 30% 늘었음. 이는 2010년(2,440만 달러)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임.
- 대북 지원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스웨덴,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총 19개국으로 2010년 6개국, 2011년 17개국보다 늘었음.
- RFA는 북한이 올해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으로부터 190만 달러의 '긴급대응지원금'을 받은 것도 대북지원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함.
- 한편, OCHA 대변인실은 올해 유엔이 주력한 대북지원 부문은 식량공급과 영양개선, 농업지원 등이었다며 대북 지원액 중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에 배당된 기금이 50%를 넘는다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올해 국제사회 대북지원 전년 대비 30% 증가", 2012.12.18)

아일랜드 NGO, 올해 식수·환경 등 5개 대북사업

-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의 미레일 디쿠마겐지 북한 지원 담당관은 11일 "약 160만 달러의 예산으로 황해북도 금천군과 신계군, 평안남도 회창군에서 주민 20만 여명을 대상으로 식량과 식수, 환경 등 5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함.
- 디쿠마겐지 담당관은 "지난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금천군과 신계군, 회창군 등 3개 지역에서 식량 생산 증대와 주민 영양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한다"고 설명함.

- 디쿠마젠지 담당관은 “컨선 월드와이드의 대북 지원사업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그리고 아일랜드 외교부 개발협력국(Irish Aid)의 지원금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아일랜드 NGO, 올해 식수·환경 등 5개 대북사업", 2013.1.12)

3. 북중 교역 동향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147	6,304	155	737	288	7,631
2	-	136	146	0	122	90	496
3	-	2,718	543	0	5,392	172	8,825
4	-	3,002	2,069	80	5,585	84	10,820
5	1	8,347	2,778	39	6,852	12	18,029
6	0	2,995	1,702	0	3,392	6,420	14,509
7	0	3,118	2,406	122	1,723	163	7,532
8	0	4,706	5,396	0	7,166	4,521	21,789
9	0	3,726	2,709	0	6,856	1,556	14,847
10	0	15,636	2,469	900	4,375	78	23,458
11	0	697	21,109	119	4,171	19	26,115
12	0	651	7,417	120	3,927	33	12,148
2011.1-12	1	45,879	55,048	1,535	50,298	13,436	166,197
2012. 1	0	764	326	0	1,850	633	3,573
2	0	117	653	29	1,705	398	2,902
3	102	800	2342	145	7,730	156	11,275
4	0	7,284	2,412	0	6,376	10,217	26,289
5	0	1,276	3,376	3	6,086	680	11,421
6	0	1,250	2,200	0	4,014	395	7,859
7	0	1,463	2,221	74	3,367	1,029	8,154
8	0	1,797	3,284	0	6,112	480	11,673
9	240	2,238	5,100	76	7,611	691	15,956
10	0	686	913	0	7,777	65	9,441
11	0	781	672	78	6,176	126	7,833
12	0	1,931	3,253	0	5,507	72	10,763
2012.1-12	342	20,387	26,752	405	64,311	14,942	127,139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600	10,815	240	1,951	480	14,086
2	-	470	312	0	295	145	1,222
3	-	9,050	1,117	0	13,692	265	24,124
4	-	9,819	3,937	123	14,069	130	28,078
5	1	27,491	5,410	60	17,348	18	50,328
6	0	9,544	3,603	0	8,543	9,645	31,335
7	0	10,012	4,703	195	4,243	231	19,384
8	0	13,286	10,417	0	17,458	6,817	47,978
9	0	10,200	4,981	0	16,785	2,236	34,202
10	0	41,380	4,707	2,500	10,662	120	59,369
11	0	1,946	29,800	184	10,216	30	42,176
12	0	1,953	12,440	0	9,701	55	24,149
2011.1-12	1	135,751	92,242	3,302	124,963	20,172	376,431
2012. 1	0	2,309	615	0	4,545	910	8,379
2	0	401	1,241	50	4,222	620	6,534
3	200	2,226	4,172	230	19,193	222	26,263
4	0	18,433	4,480	0	15,654	12,411	50,978
5	0	3,613	6,025	6	15,138	1,006	25,788
6	0	3,355	3,995	0	9,829	547	17,726
7	0	4,290	4,360	114	8,189	1,534	18,487
8	0	4,982	6,144	0	15,333	670	27,129
9	400	6,107	9,131	117	18,972	1,003	35,730
10	0	1,627	1,589	0	19,019	94	22,331
11	0	2,120	1,270	120	14,906	190	18,606
12	0	4,980	5,989	0	12,704	29	23,702
2012.1-12	600	54,445	49,011	637	157,704	19,236	281,6331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2년 12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23,702톤으로 11월의 18,606톤보다 27% 증가하였음.
 - 11월에 비해 밀가루의 수입량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옥수수과 쌀의 수입량은 대폭 증가함.
 -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총 281,633 톤으로 2011년의 376,431톤과 비교할 때 25.2% 감소하였음. 곡물 총 수입액에 있어서는 2011년 1억 6,620만 달러에서 2012년 1억 2,714만 달러로 23.5% 감소함.
 - 201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비중은 옥수수 19.3%, 쌀 17.4%, 밀가루 56.0%, 콩 6.8%임. 2011년의 경우 곡종별 수입 비중은 옥수수 36.1% 쌀 24.5%, 밀가루 33.2%, 콩 5.4%였음. 2011년과 비교할 때 2012년에는 옥수수와 쌀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 밀가루와 콩의 수입 비중은 증가함. 2012년의 경우 밀가루 수입 비중이 전체 곡물 수입량의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한 것이 특징임.
- 201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451.4달러로 2011년의 441.5달러에 약간 상승함.
 - 2012년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톤당 수입 단가는 옥수수 374.5달러, 쌀 545.8달러, 밀가루 407.8달러, 콩 776.8달러였음. 2011년의 곡종별 톤당 수입단가는 옥수수 338.0달러, 쌀 596.8달러, 밀가루 402.5달러, 콩 666.1달러였음. 2011년과 비교하면 2012년에 쌀은 8.5% 하락한 반면 밀가루는 1.3% 소폭 상승하고 옥수수와 콩은 각각 10.8%, 16.6% 상승함으로써 국제곡물시장의 가격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
- 2013년 1월 28일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13년 3월물 옥수수 선물 가격은 톤당 286달러(yellow corn 2등급 기준), 밀은 287달러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2년 7~8월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3년 1월 28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13년 3월물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532달러(yellow soybean 1등급 기준)로 2012년 8월 이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톤당 국제가격(FOB)은 현재 783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573달러로 비교적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 1	72	-	0	-	72
2	2,651	-	0	-	2,651
3	1,667	-	0	41	1,708
4	4,772	4	1	2	4,779
5	13,870	0	0	0	13,870
6	16,714	0	0	88	16,802
7	53,557	0	0	1,300	54,857
8	747	0	0	250	997
9	0	0	0	0	0
10	134	0	0	2	136
11	0	0	6	0	6
12	3	0	0	2	5
2011.1-12	94,188	4	7	1,684	95,883
2012. 1	0	0	0	2,533	2,533
2	0	0	0	246	2,779
3	0	5	0	0	5
4	3,507	5	11	10	3,533
5	15,233	0	62	92	15,387
6	32,198	35	0	3,635	35,868
7	7,267	0	15	95	7,377
8	4,351	0	0	0	4,351
9	0	0	0	45	45
10	191	0	0	109	300
11	9	0	0	0	9
12	0	0	0	10	10
2012.1-12	62,759	45	88	6,775	69,667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01	151	-	1	-	152
2	15,064	-	-	-	15,064
3	10,151	-	0	99	10,250
4	21,755	40	1	3	21,799
5	67,067	0	0	0	67,067
6	75,844	0	0	220	76,064
7	156,934	0	0	3,463	160,397
8	3,365	0	0	555	3,920
9	0	0	0	0	0
10	300	0	0	5	305
11	0	0	5	0	5
12	11	0	0	3	14
2011.1-12	350,641	40	7	4,348	355,036
2012. 1	0	0	0	6,089	6,089
2	0	0	0	401	401
3	0	40	0	0	40
4	15,160	40	5	13	15,218
5	69,208	0	56	84	69,348
6	114,838	160	0	7,778	122,776
7	16,338	0	14	218	16,570
8	21,604	0	0	0	21,604
9	0	0	0	106	106
10	508	0	0	95	603
11	25	0	0	0	25
12	0	0	0	10	10
2012.1-12	237,681	240	75	14,794	252,790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2년 12월 들어 북한은 중국에서 10톤의 기타 비료만을 수입하여 9월 이후 저조한 수입 실적을 유지함.
 - 2012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화학비료의 총량은 252,790톤으로 2011년의 355,036톤과 비교할 때 28.8% 감소하였음.
 - 2012년에 수입한 비료는 요소 44,719톤, 유안 192,946톤으로 두 가지 비료가 전체 비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0%임.
 - 2011년과 비교할 때 2012년에는 요소의 수입량이 53.3% 감소하였으며 유안은 24.3% 감소하였음.
- 2012년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유안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톤당 219달러로 2011년의 192달러에 비해 14% 상승하였음.
 - 한편 요소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457달러로 2011년의 473달러와 비교할 때 3% 가량 하락함.
-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비료를 수입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농업생산 증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에 의하면 2012년 가을 작황은 2011년에 비해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에는 가뭄, 태풍, 홍수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생산량이 증가한 비료 등 농자재의 공급 상황이 비교적 좋았으며 적기에 공급 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함.
 - FAO와 WFP는 북한이 2012년에 총 726,627톤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2011년의 745,965톤에 비해 2.6%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함. 북한은 2008~2010년 동안 연간 사용한 화학비료의 양이 50만 톤을 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2011년과 2012년에는 화학비료를 50% 이상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 결과 곡물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음.
 - FAO와 WFP가 추정한 2012년 북한의 화학비료 수입 및 지원량은 483,586톤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252,790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20만 톤 이상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 자체 비료 생산량도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담보*

홍 광 선

- 당의 농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현시기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담보임.
-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초미의 문제, 선차적인 문제이며 강성국가건설을 여는데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
- 당의 농업방침에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과업과 과학적 방도가 집대성되어 있음. 그러므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기본담보가 됨.
-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문제는 농업과학기술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음. 당의 농업방침에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모든 영농작업을 기계로 하고 농업과학연구부문에서 종자혁명문제, 영농기술과 영농방법문제와 같은 절실하고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농업근로자의 농업과학기술지식수준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업과학기술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밝혀져 있음.
- 당의 농업방침은 농산과 축산의 배합과 발전을 비롯하여 농업생산과 기술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여 우리 자체의 힘으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

* 경제연구, 2012년 제4호(누계 157호), 2012.

리나라 농업을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면모에 맞게 자립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요구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항구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일관성 있게 관철해나가야 할 지침임.

- 모든 농업부문 일군, 근로자, 과학자, 기술자는 당의 농업방침에 대한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강성국가를 여는데 앞장서야 함.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하는 것은 현시기 산림조성사업의 중요한 과업*

김 성 금

-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가 산림조성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와 관련됨.
-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밑천임.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해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리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으며 인민에게 좋은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음.
- 산림을 새 세기의 요구,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조성하면 경제강국건설을 이루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도 그 덕을 많이 볼 수 있음. 산이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에서 산림을 잘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인데 많은 문제를 자기 자원으로 풀어나갈 수 있음.
-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림의 현 실태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임. 지금 우리나라에는 나무가 얼마 없는 산이 적지 않으며 나무가 있는 경우에도 용재적 가치가 없는 나무와 잡관목이 많음. 이러한 형편에서 산림조성사업을 새 요구에 맞게 개선하지 않고서는 후대에게 풍요한 산림자원을 물려줄 수 없음.
-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임. 수종이 나쁜 나무를 없애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으면 10~20년 후에

* 경제연구, 2012년 제4호(누계 157호), 2012.

는 그 덕을 볼 수 있음.

- 나무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조해야 함.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나무심기가 실지로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후대에게 물려줄 만년재부를 마련할 수 있음.
- 척박하고 산성화된 땅에는 아카시아나무를 심는 것이 좋음. 마을 가까이에 있는 야산과 농촌살림집 주변에는 과일나무를 심으며 산기슭 같은데는 밤나무를 많이 심어야 함.
-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빨리 실현하자면 나무모와 종자문제를 풀어야 함. 나무모를 키우는 것은 수림화, 원림화의 첫 공정임. 도, 시, 군을 비롯한 해당 단위에 양묘장을 잘 꾸리고 스트로브스소나무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빨리 자라고 경제적 이용가치가 큰 나무모를 계단식으로 많이 생산보장해야 함.
- 나무를 많이 심어 산림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보호관리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함. 나무를 심은 다음 날 관심을 돌리면서 풀과 잡관목 같은 것을 베어주어야 나무가 잘 잘라 수 있음. 또한 산불을 철저히 방지해야 함.
- 산림과학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함. 산림과학연구기관과 식물원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산림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함. 식물원에서는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나무를 기르는 방법을 연구하며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사업을 적극 벌려야 함.

E02-2012-04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4호

찍 은 날	2013. 1	펴낸날	2013. 1
발 행 인	이 동 필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